11일 Market Index
코스피 5375.36 (+136.23)
코스닥 705.10 (+37.49)
금리(국고채 3년) 3.729 (-0.096)
환율(원·달러) 1333.6 (-3.9)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전력 확충·공급, AI·반도체 성장 핵심과제"

메트로미디어, 에너지인프라포럼

"전력 중앙집중형 방식 벗어나 지역 생산·소비 '지산지소' 필요 결국 '용량 아닌 역량' 중점돼야"



메트로미디어가 주최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첨단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고, AI 데이터센터 역시 대규모 연산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발전설비 확충뿐 아니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전달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트로미디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반도체와 AI,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생산과 송배전, 에너지 저장 및 수요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L6·L7〉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는 'AI 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AI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전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가 실제 업무와 산업 현장에 개입하면서 데이터센터 규모도 수십㎿에서 수백㎿, 나아가 GW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보완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에너지부터 AI 응용까지 집대성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에너지 인프라가 있다"며 "과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안보의 범위가 석유·가스에서 전력과 핵심광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입지 선정과 전력망 접속, 실제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센터의 학습 작업과 냉각 설비 등 조절 가능한 부하를 활용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발전설비를 몇 GW 짓느냐 ESS를 몇 MW 설치하는게 중요한 시대를 넘어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할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 용량에서 역량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5개 증권·은행 국고채 입찰담합에 1.6조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위, 7개사는 중수청 고발
15개 PD사, 3년 6개월간 담합 적발
경쟁사와 5초만에 투찰금리 맞추고
입찰 매뉴얼 사내 공유 '일상적 관행'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수년 동안 입찰 금리와 물량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만 무려 1조 6000억 원을 웃돈다. 국가예산 낭비와 직결되는 공공·금융 분야 입찰 담합 역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제재다. 〈관련기사 3면〉

공정위는 11일 교보·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대신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하나·산업·중소기업은행 등 은행 5곳 등 총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다.

◆ 3년 6개월간 150건 입찰서 '한몸'… 담합 인수인계도

PD(Primary Dealer·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핵심 금융기관이다. 이들은 매달 정부가 실시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일정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대신, 정부로부터 국고채 비경쟁인수 권한이나 자금 지원, 우수 딜러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PD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이뤄진 담합 중 145건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실제 투찰 가격과 물량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입찰담합)로 이어졌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녹취록과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은 이미 '일상적 관행'이었다. 입찰 당일 경쟁사와 통화할 때 "안부 따윈 없다"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예: 3.70%)를 맞추는 식이었다.

심지어 후임자에게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와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상세히 적은 '인수인계서'를 넘겨주거나, 입찰 20분 전부터 타사 금리를 조사해 평균값을 내는 '입찰 매뉴얼'까지 사내에 공유하며 손발을 맞췄다. 출장이나 연가 시 대직자까지 지정해 가며 담합의 끊김을 방지하기도 했다.

◆ 왜 담합했나… '고가 낙찰'과 '손실' 피하려 경쟁 포기

국고채는 국가 재정 조달의 핵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채권 거래와 대출·예금 등 시중 금리 산정의 '기준(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의 적정한 가격(금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美 '빅스텝' 거론에 韓, 금리 셈법 복잡

미국의 추가 긴축 경계가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국내 근원물가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할 필요성이 남은 가운데,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비용까지 밀어 올리면 고용 회복이 더딘 부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9월의 0.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0.3%)를 웃돌았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0.2%)보다 높은 0.3%로, 공표치 기준 세 달째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CPI 발표 전 연설에서 "근원 CPI가 약 0.3% 이상이면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0.5%포인트(p)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치가 월러 개인의 검토 조건에 부합했지만, 빅스텝이 연준의 공식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연준 이사 "0.5%p 인상 검토"
한은, 물가·가계부채 등 고려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 나서

긴축 경계에 지난 10일 미국 거래 후반 2년물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약 0.18%p 오른 4.731%를 기록했고 달러지수는 0.56% 상승했다.

오는 26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은 국내 물가 경계도 늦추기 어렵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지만 한은 목표인 2%를 웃돌았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8%로 같았다. 전체 물가 둔화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이 작용했다. 한은은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증대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살펴야 한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으로 9월 5000억원보다 커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증가가, 기타대출에는 전월 계절요인의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 부채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증가액만으로 신규 주택 수요의 과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가 인상의 비용을 판단할 국내 지표도 엇갈린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성장했고, 10월 전체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13만 9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고 건설업 취업자는 4만2000명 줄었다. 성장과 고용 개선이 취약부문까지 고르게 확산됐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메트로 한줄뉴스



▲눈길서 탱크로리·버스 연쇄추돌 한다면…행안부, 대응훈련
▲철도노조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사진 뉴시스

▲이춘석 의원 측 "무료함 달래려 소액 주식 거래"…'보좌관 폰' 혐의 부인
▲국힘 "이용철, '이재명 탈옥부 장관' 될 것"…주말 부산서 장외투쟁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무죄…"증명 부족"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손절"…10명 중 8명 '인간관계 다이어트'

이형일, 노동시장 이중구조·大-中企 격차 완화 팔 걷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재경부,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경제부총리 팀장으로 TF 발족
지역 간 격차완화반 등 5개 예정
재경부·보건부 공동 총괄반 구성
3대 민생프로젝트 점검·관리 나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 양극화 대응에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선다. 관련 전담반(TF)을 발족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양극화 관련 세부 대응책은, 다음 달 발표될 '2027 경제성장전략(구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꾸릴 예정이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고 부처 1급이 참여한다. 작업반 팀장 중심으로 국책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핵심과제 발굴·구체화한다는 게 목표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총괄반도 구성된다. 총괄반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거나 TF의 총괄·조율 역할을 맡고 3대 민생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를 점검·관리한다.

매주 작업반별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처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조율한다. 12월 초까지 부문별 작업반·총괄반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추진 방향을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10월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9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경신한 것을 언급하고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달 13일 발표한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중동 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공표하는 경제전망을 연 3회로 늘린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재초환에 세제 변수까지… 강남3구 매매 관망세

부동산원, 이달 첫주 아파트 매매가
강남·서초 13주, 송파 9주째 내림세
재초환 부담 영향, 매매협의 어려워

서울 강남3구의 고가 신축 아파트에 이어 개포와 잠실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집값 조정이 뚜렷하다. 반포현대와 은마 재건축조합에는 잇따라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지됐고,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아파트 매수자는 추가 부담을 감안해, 집주인은 세제 개편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 강남3구 중소형까지 하락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2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9% 내렸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37%, 0.17% 하락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올랐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13주째, 송파구는 9주째 내림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에 계약된 사례는 16건이었다. 하락 거래는 반포의 고가 신축부터 개포·대치의 중소형, 잠실 대단지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함 랩장은 일부 급매 거래에서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매수자는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세금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매도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호가를 낮춘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변수로 떠올랐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기간에 늘어난 주택가액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 반포현대·은마 재초환 사전통지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 통지했다. 2021년 준공한 이 단지에 최종 부과에 앞서 산정액을 알린 것이다. 조합은 이 가운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과 시한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도 지난달 30일 강남구로부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오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값이다.

재초환 부담은 재건축 단지 매수자의 지불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매수자가 향후 부담금까지 감안해 가격을 낮춰 부르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하락 거래가 성사되는 셈이다. 집주인이 호가를 유지하거나 매수자가 부담금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미룬다면 거래부터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부담금이 조합의 사업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착공과 신축 공급에도 시차를 두고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초환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담금 액수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매매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매도를 서두르는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액을 계속 낮춘다고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담금까지 포함한 매입 비용이 명확한 매물을 선호하는 매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완화론 솔솔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 일부 집주인은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임대를 이어갈 수 있다.

함 랩장은 "향후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려면 하락거래의 지속성과 거래량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거래량이 회복되고 후속 거래가격이 반등한다면 최근 조정은 일시적인 가격 재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젠슨황 불륜녀 10조 AI반도체 中에 공급 의혹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의 불륜 상대가 약 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CEO는 불륜 사실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정상 출근했으나 논란은 엔비디아 해외 유통망 관리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1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사업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젠슨 황 CEO와의 관계를 활용해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 상당의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의혹이 제기된 물량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H100 등 약 24만개에 달한다. 반도체 확보 과정에서는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센추리 리통이 2023년 6월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엔비디아의 우대 클라우드 협력사로 선정돼 공급 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같은 해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에도 센추리 리통은 유통업체를 통해 반도체를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앨리스 황은 수출제한으로 주문이 지연되자 엔비디아와 유통업체 인맥을 활용해 물량 확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도체 공급에는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활동했던 싱가포르 메가스피드와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 등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외신은 이들 기업을 통해 확보한 반도체 일부가 중국에 직접 반입됐다고 보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원전·재생·LNG발전 조화롭게 활용을"

〉〉 1면 '전력 확충·공급망…'서 계속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전 전망에 따르면 국내 최대전력 수요는 2025년 100.9GW에서 2038년 129.3GW로 약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과 AI 확산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와 변전소 확충, 민간 참여형 전력망 공동건설, 가상송전망(VPL) 및 ESS 활용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곽 처장은 "AI·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전력망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며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ESS·인버터 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리드코드를 마련하고, 전력망과 산업시설의 구축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전력 소비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역시 2040년 최대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26.6GW 증가한 158.4GW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LNG 발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산업팀 책임은 국내 데이터센터 97곳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시설의 78%, 건설·계획 단계 시설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하는데 전력망 접속 여건을 중요하게 생가하는 만큼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 인재 육성, 재생에너지 공급 등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책임은 "전력 조달 다변화와 지역 산업 연계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 사용량, 고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투찰정보 공유로 낙찰금리 상승… 공정위 "국고 손실 초래"

150차례 정보교환·145차례 합의
낙찰금리 0.57~1.41bp 상승 분석
시장 특수성 고려 과징금 30% 감경
7개 법인 고발에 시장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부과한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은 공공·금융 분야 입찰 담합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대형 제재다. 종전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이었던 퀄컴 사건(약 1조 311억 원)을 가볍게 경신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 계약금액 4.5% 부과기준율서 30% 감경… 공정위 "구조적 특수성 등 고려"

이번 사건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의 기준이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구매담합에 대한 입찰 특례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6개월간 담합이 이뤄진 기간의 낙찰금액(계약금액) 약 54조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기재한 관련 매출액은 76조2000억원으로, 산술적으론 과징금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사들은 "국고채 낙찰액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나 매출이 아닌 국가 채권을 사기 위해 치른 대금에 불과하므로 회계상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리적 정합성을 검토해 계약금액 기준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상위 PD의 10% 의무 인수 규정이나 하위 PD의 실적 점수 인정 등 국고채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과 부당이득 측면을 고려, 과징금 산정 시 부당이득 측면의 감경 사유를 반영해 30%를 일괄 감액했다. 또 재경부 측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행 시장 충격 최소화를 요청한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 공정위 "담합 없었다면 금리는 더 내려갔을 것, 국고 손실로 이어져"

피심인측은 "실제 시세차익이나 수익성이 높지 않고, 받자금리나 골대금리는 실적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투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은 계량 분석을 통해 이들의 정보교환 및 가격 합의가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로 인해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0.57~1.41bp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모든 케이스가 시장금리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18개 PD가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수요 구조 속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금리는 지금보다 더 내려갔을 것"이라며 국고 손실과 시장 왜곡의 책임을 물었다.

또 피심인 측은 외국의 경우 이 정도 소통은 '잡담 수준'으로 보아 제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의 단순 분위기 교환 수준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150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투찰금리와 물량을 교환하고 145차례나 실제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구체적 의사 합치가 명백한 EU식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 담겼던 전현직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고 법인 고발(7개사)로 정리된 이유는, 임원진이 주도한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실무선 간의 친소관계 속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의 임원급이나 대표급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수의 대형 금융사 중심의 폐쇄적인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담합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천문학적 과징금과 7개사 고발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고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케이비증권(3321억여원)을 비롯해 7개사의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재무적 부담 여력과 시장의 반응을 다각도로 고려했음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소수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시장이 좀 더 자유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금융권, 과징금 산정 기준 반발… 행정소송 검토

낙찰액 아닌 영업수익 기준 적용 요구
공정위, 계약금액 기준 타당 판단
금융사, 의결서 검토 후 대응 방침

국고채 입찰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자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금융권이 문제 삼는 건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인수한 국고채를 보험사나 공제회 등 기관에 넘기거나 직접 운용한다.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뒷받침하는 시장조성에도 활용한다. 인수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보유분에서 평가손실이 나거나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낙찰액은 인수에 쓴 돈인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시장 전망 공유냐, 응찰 조건 합의냐 … 입찰 직전 대화가 쟁점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입찰 제도상 증권사가 인수·유통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없거나 미미했다"며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AI 생성 이미지

KB증권은 공식 입장문에서 PD가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국가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및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고채를 사들이는 입찰에서 경쟁이 제한된 만큼 계약금액인 낙찰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심사관이 당초 약 76조2000억원으로 잡은 산정 대상 금액을 심의 과정에서 약 54조원으로 줄이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낙찰액 전체를 금융사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5곳 모두에 30% 감경을 적용하고 회사별 사유도 반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 전에 상대 회사가 시장금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묻는 것과 실제 써낼 금리를 미리 맞추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채를 인수한 뒤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만큼 수요와 금리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응찰 조건은 각 회사가 정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 회사도 물량을 여러 금리 구간에 나눠 응찰한다며, 일부 구간에 관한 대화만 떼어 보면 전체 응찰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 의결서 검토 후 대응… 공동 소송 여부는 미정

과징금 규모가 큰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응할지는 의결서를 받은 뒤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의결서에 담긴 결정 이유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공시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2427억8500만원이 지난해 말 연결 자기자본의 2.5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정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공정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이 의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핀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관련 충당부채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으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실적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금융사가 제재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과 고발에 따른 형사 절차가 각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투자자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부"라며 일반 투자자가 입찰 담합과 자신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허정윤·나유리·신하은·김아영 기자 zelkova@

PD사, 수익성 악화 우려
투찰금리 등 사전 조율

›› 1면 '15개 증권… '서 계속

그러나 PD사들은 경쟁적인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지나치게 낮게(가격이 높게) 결정돼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택했다. 시장 수요가 적어 낙찰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골대금리(실적 인정용 금리)'를 서로 맞춰 불확실성을 지우고, 인수 부담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

실제로 정보교환 담합 기간 중 전화통화가 있었던 입찰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이 55.6%에 달해, 전화통화가 없었던 경우(18.2%)나 비담합 기간(8.5%)과 비교해 일치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일 금리 투찰 비율 55.6%
공정위, 경쟁입찰 정상화 강조

◆ 공정위 "공공 분야 입찰 담합, 예외 없이 엄단"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진입장벽이 높아 소수의 금융기관이 과점하는 국고채 발행시장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깨고,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경쟁입찰 제도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채 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막고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금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피해 배상 책임론 제기… 투자자 손해 입증은 '난제'

공정위, 국고 손실액 제시 안 해
전문가, 투자자 집단소송에 회의적
시민단체, 국고 손실 배상 촉구

증권 및 금융사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논의가 구체화하면 실제 거래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입찰 담합과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간접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개인별 거래금액에 비해 소송 비용 부담이 클 수 있고, 금융사들이 공정위 처분의 근거를 다투기 시작하면 배상 문제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국고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과징금이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이 된다면 주주들이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정의연대 차원의 대응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국고 손실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집단소송 제도와 함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징벌배상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한 담합을 막기 위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윤·신하은·김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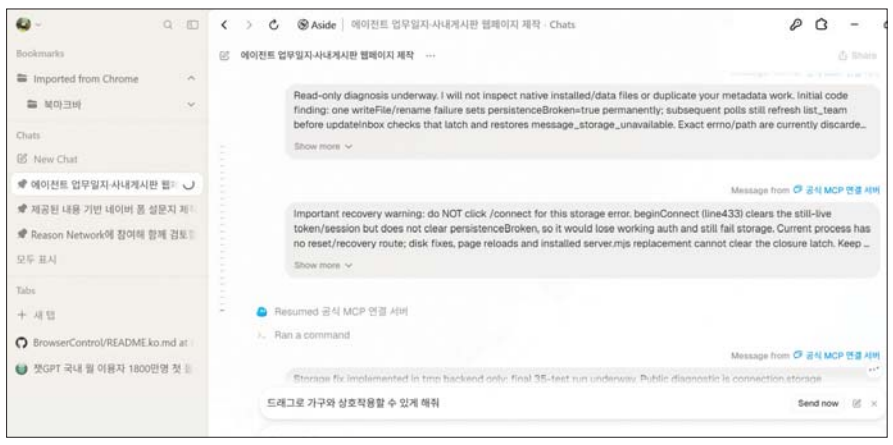
네이버 폼 열어 설문 입력, 엑셀·홈피 제작 스스로 '착착'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

❷ 웹서핑 대신하는 AI

어사이드, 브라우저 내 AI 비서 결합
구글 '제미나이'로 크롬 웹 작업
네이버 웨일, 요약·일정 등록 지원

AI 웹 활동에 공개 콘텐츠 품질↓
프리미엄 콘텐츠로 폐쇄성 심화 우려



기자가 AI 브라우저 '어사이드(Aside)'에서 AI 에이전트에게 웹페이지 제작을 맡긴 화면. /어사이드 화면 캡처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입력칸을 채우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일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용자가 일일이 검색하고 클릭하던 브라우저가 AI 에이전트의 작업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AI 브라우저 '어사이드'에 설문 문항을 건네자 AI가 네이버 폼과 구글 폼을 열어 문항을 입력하고 설문지를 만들었다.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미리 정해둔 양식에 맞춰 한글 문서도 작성했다. 엑셀 파일과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AI 에이전트끼리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리즌 네트워크'를 연결하자 서로 다른 AI 모델들이 서로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결과를 교차 검증하며 분업했다.

AI 브라우저는 웹페이지 요약이나 질문에 답하는 기능 등 AI를 결합한 브라우저를 말한다. 이 중에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클릭과 입력 같은 작업까지 수행하는 기능도 있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목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면, 브라우저는 에이전트가 웹에서 일하는 공간이자 도구인 셈이다.

◆새 브라우저부터 기존 크롬·웨일까지

AI를 접목하는 방식은 별도의 AI 브라우저를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쓰던 브라우저에 내장된 기능이나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외부 AI 에이전트가 연결해 사용하는 브라우저도 등장했다.

어사이드는 브라우저 안에 AI 비서를 결합했다. 이용자는 로그인한 웹사이트와 계정을 활용해 메시지와 업무 도구 등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퍼플렉시티의 '코멧'도 별도 브라우저로, 검색과 정보 정리뿐 아니라 여러 웹사이트의 상품을 비교하는 등 웹 작업을 돕는다.

'이고 라이트'는 외부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등과 연결하면 이용자가 선택한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양식을 입력할 수 있다.

구글은 기존 크롬에 들어간 '제미나이인 크롬'의 '오토 브라우즈' 기능으로 여러 단계의 웹 작업을 지원한다. 구글은 날짜별 항공편과 호텔 가격 조사, 온라인 양식 입력,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작업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웨일에 웹페이지 요약·번역과 질의응답, 탭 정리, 네이버 캘린더 일정 조회·등록·수정 등을 지원하는 'AI 챗'을 출시했다.

챗GPT와 클로드는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 오픈AI는 독립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종료하고, 브라우저 기반 에이전트 기능을 챗GPT와 코덱스로 옮겼다. 크롬 사이드바에서 챗GPT를 쓸 수 있도록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개편했다.

◆AI, 웹 요청 급증…광고 기반 웹 '흔들'

AI가 웹에서 활동하는 규모도 커지면서 광고 기반 웹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기업 휴먼 시큐리티에 따르면 자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측한 10월 에이전트 요청량은 전월보다 157.5% 증가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AI가 필요한 콘텐츠만 싹 뽑아가면 광고는 노출은 안 되고 콘텐츠만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들은 공개된 사이트에는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퀄리티의 정보만 공개하고, AI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프리미엄 콘텐츠를 두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인터넷상의 공개 콘텐츠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대출심사에 근로·노무제공 이력 반영

금융위-고용부-금감원 등 '맞손'
건설근로자·노무제공자 포용금융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추진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고용 형태가 다양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근로와 노무제공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관련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와 신용평가 과정에서 실제 근로이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한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애로 해소와 경제적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노동단체와 노무제공자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2027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이력 정보를 대안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흑석10구역 재개발, 중앙대와 맞교환 추진

중앙대 희락관 부지 약 2988㎡ 규모
구체적 조건, 정산 등 아직 미확정



지난 10월 서울 동작구 흑석10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0구역 재개발 추진 측과 중앙대학교가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 소유의 옛 희락관 부지와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교환해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고, 아파트 배치와 도로체계를 개선하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토지교환은 확정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가 최근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의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1일 서울시와 동작구청, 중앙대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흑석10구역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는 중앙대 소유의 옛 희락관 부지를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동작구청은 이달 2일 서울시로부터 가이드라인 확정 통보를 받았다.

교환 대상으로 검토되는 희락관 부지는 동작구 흑석로7길 17 일대 약 2988㎡ 규모다. 현재 중앙대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교환은 중앙대 소유 부지와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맞바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동 배치를 효율화하고 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흑석10구역은 고구동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지와 최대 69m에 달하는 지형 고저차, 좁은 진입도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곳이다. 과거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돼 2014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에서 도로체계 개선과 지형에 순응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존 왕복 2차로인 흑석로의 폭을 12m에서 15m로 넓혀 3차로로 확장하고, 흑석로에서 동양중학교와 본동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연결하는 폭 14m의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도와 전면공지를 활용해 최대 5m 폭의 보행공간도 확보한다. 고구동산 인근에는 6~8층의 저층 주동을, 지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는 최고 23층의 고층 주동을 배치할 계획이다. 희락관 부지 토지교환은 이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양측은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앙대 측에서도 희락관 부지 토지교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조건과 토지가치에 따른 정산 문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교육부의 허가 등 관련 절차도 거쳐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환하려면 재산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과 처분 가액 등이 확정된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며 "재산처분에 따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교환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중앙대와의 토지교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대 부지를 기존 상태로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청년 고용률 42.9%… 30개월 째 하락세

데이터처 '지난달 고용동향'
제조업 취업자, 반등 후 다시 감소

청년 고용률이 3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0월 기준으로는 6년 사이 가장 낮았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4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지난달 14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p) 내렸다. 30개월 연속 하락으로, 10월 기준으로는 2020년 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인 15~34세 취업자는 632만3000명으로 13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5.4%로 0.6%p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청년층 취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는 늘었지만 정보통신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빈 국장은 "청년층 인구도 14만1000명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크다 보니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수시 채용 문화와 경력직 선호 등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35만7000명으로 7000명 줄었다. 지난 9월 1만6000명 늘며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화학물질과 금속 가공제품,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으나 섬유제품과 자동차, 의복 등에서 줄었다.

빈 국장은 "이번 달 한 달만 가지고 지난달이 반짝 상승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고용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특검 공정성 공방에 한덕수 구속 논란까지… 예결위 격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국힘 "대통령 재판 개입 우려"
조작기소특검 이해충돌 논쟁
민주당, 한덕수 구속 영장 촉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공소취소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될 수 있단 점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인데, 여당이 특별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그 결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고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문제의 특검법엔 공소취소 권한 규정이 있었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를 삭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 수사, 기소 과정과 제출된 증거를 사후에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데, 그 결과를 기존 재판에 활용할 경우 재판부의 독립적인 심리 그리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에 올라온 17건 중에 8건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되거나 관련된 사건들"이라며 "여기서 기소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나. 공소 기각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추후에) 활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것도 이해충돌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수사로 말미암아 편파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이해충돌이다. 17건 중 8건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는데 왜 이해충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의 제정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뺀 것은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넘겨받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재판을 지우는 그런 길은 막았다"면서도 "(특검에서) 조작기소였다고 결론 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 측은 이 결론 자체를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낼 수 있다.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도 신천지 교인 당원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을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올해 초에 국민의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원 명부 전수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민주당도 우리 당에 대해서 요구한 만큼 똑같이 특검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신천지의 조직적 민주당 입당 그리고 당내 선거 개입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조사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일주일 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했다"며 "국민의힘에는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면서 자신들의 의혹은 비공개 조사로 덮겠다는 것이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는 21일 구속만기로 석방될 수 있다"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 1·2심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결 지연으로 석방된다면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 이진관 재판부에서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는 30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내란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11월20일에 만료되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11월30일 선고에서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약 열흘동안 불구속 상태가 된다. 별도의 1심 재판부에서 오는 20일 전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중대 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조희대 사법부, 내란 재판 늑장"

전남광주서 민주당 최고위 주재
"내란 청산, 사법 농단 바로잡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이 부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청산하고 사법 농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열린시민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 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땐 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며 "내란 재판에 손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 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에 선전 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을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연임 논란 선 긋고 개헌 논의 본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 회기 내 개헌을 완수하기 위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개정안을 제안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야당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 의장은 개헌 실현을 위해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다.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며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사과에도 여전한 신천지 의혹… 김민석 책임론 확산

징계청원까지 당내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까지 접수됐다. 향후 김 대표의 대응이 갈등 수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전날(10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상대 후보와 지지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초래했다는 취지다.

A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청원서에는 김 대표가 근거 없는 신천지 관련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원들의 명예와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훼손했고, 당내 갈등을 야기했다고 돼 있다. 또 A씨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이후 김 대표는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었다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논란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제52조 제2항(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근거로 김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대표의 사과에도 비판이 지속되고, 징계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당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수출이 원화값 뒷받침… 강달러 상쇄 '내년 1200원' 기대감

美 금리인상 우려에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 달러당 1333.6원
3분기 주요 20개국 중 절상률 1위
4분기도 전반적 하향안정화 흐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미 연준의 금리 전망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이슈로 떠올랐지만, 원화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주요국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원화는 탄탄한 수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33.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종가보다 3.9원 내린 수준으로, 이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측치를 웃돌며 달러값을 끌어 올렸는데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원화값 상승)했다.

◆ **뚜렷한 '달러 강세'**

최근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102.2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과 비교해 0.58 오른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달러가 강세 국면인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시장 경계감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0.3% 상승을 기록했는데, CPI와 근원CPI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오는 12월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 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100%로 확신하고 있으며, 단번에 50bp(1bp=0.01%p)의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14.9%로 전망한다.

◆ **'꿋꿋한' 원화값…하향안정화 지속**

달러값이 강세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대외적인 달러 강세 압력을 상쇄할 만큼 원화값의 상승요인이 뚜렷해서다.

원화값의 최대 상승 요인으로는 올 상반기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대비 과도하게 평가절하됐던 원화값이 꼽힌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 장기화와 국내증시 조정 영향으로 지난 7월 초 달러당 1555.8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상승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절상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강세로 전환했다.

원화값의 강세는 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낙폭은 지난 10월부터 한풀 꺾였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기업의 달러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원화값의 약세 요인이 됐던 해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도 잦아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내년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7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는) 내년도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원·달러 환율은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하향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이유정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모습이며, 반도체 기업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 수급 측면의 부담도 있다"라며 "연말까지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라 완만한 원화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계대출 6.4조 ↑… 한달 새 증가세 전환

금융위, 10월 가계대출 동향
주담대 4조, 기타대출 2.4조 증가
감소했던 신용대출 1.2조 늘어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4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 2조2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5월 9조3000억원 증가한 이후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9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9월 2조9000억원에서 10월 3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5조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9월 2조9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2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증가해 전월(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9월 1조8000억원에서 10월 2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정책성 대출도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2조7000억원 감소에서 반등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2000억원 증가해 전월 7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권은 3000억원, 저축은행은 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연간 총량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시기 대출 쏠림 등으로 일률적인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대출이 순증으로 전환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감소세 등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변동성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 금융권 점검 등을 통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정년 등 생애·실수요자, 지방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보안원, 개인정보 650건 외부 유출

금융권, 해킹피해 여파에 촉각
"광고성 이벤트 정보 내역 유출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안돼"



11일 금융회사 평가를 지원하는 상시평가 시스템이 해킹돼 정보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 본원의 모습. /뉴시스

국내 금융회사들의 보안사항을 평가해 온 금융보안원 조차 해킹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금융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650여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보안원의 해킹 피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경 상시평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한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차단 대응에도 일부 정보가 외부로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접수받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 점검을 수행,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해킹 대상이 된 금융보안원 상시평가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평가에 필요한 행정서식 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창구다. 제출 서식에는 금융회사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와 더불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에 수행한 업무 내용, 법령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등이 담긴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총 650여 건이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등 행정서식 약 200건, 행정서식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300여 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마스킹 된 이름, 마스킹 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350여 건이다.

금융보안원 측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광고성 이벤트 정보 전송 내역, 동의서 등 행정서식이 대부분으로 금융회사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사고 확인 즉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는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원인, 피해 범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업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법령에 따라 제출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자료가 역설적으로 해킹 위험에 노출되면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매년 1분기 말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전년도에 수행한 업무 내용과 법령 위반 사항, 조치 결과 등을 금융보안원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체 정보보안 강화 노력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더라도 이를 위해 외부에 제출한 자료까지 유출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한 2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은행권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보안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이다. 보안에 문제없다고 평가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뿐 아니라 보안업체 등 보안을 관리하는 외부 기관의 문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긴급 점검반을 꾸려 금융보안원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가리봉 옛 시장부지, 청년 주거공간 만든다

서울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
공공임대 181가구, 주차장 등 조성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옛 시장 부지가 청년 주거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기존 건축계획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청년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일대로, 대지면적 3708㎡에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1만7982㎡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81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25㎡ 137가구, 31㎡ 44가구다. 지하 1~3층에는 공영주차장 166면이 조성되며, 저층부에는 청년센터와 가리봉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방화장실 등이 마련된다.

사업지는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역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가리봉시장에 인접해 있다. 서울시는 청년 인구와 전통시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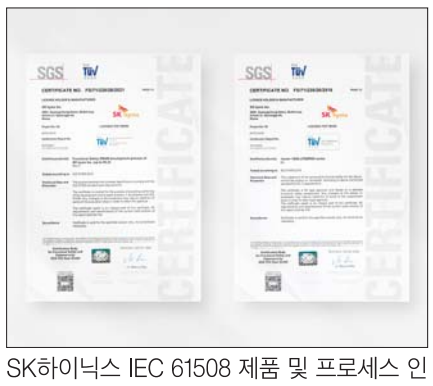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오랫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가리봉 옛 시장 부지가 청년 주거공간과 지역 생활편의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지역주민과 전통시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SK하이닉스, D램 안전·보안인증 확보… 車 넘어 로봇 공략

LPDDR5X 산업용 SIL 3 인증 확보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도 인증
자동차 안전 역량 산업용으로 확장
로봇·엣지 AI 적용 기반 등 마련
스마트공장 등 적용처 확대 추진

SK하이닉스가 저전력 D램의 안전·보안 국제 인증을 확대하며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넓힌다.

SK하이닉스는 저전력 D램 LPDDR5X로 산업용 기능안전 국제표준 'IEC 61508'의 안전무결성수준(SIL) 3 인증과 차량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ISO/SAE 21434' 기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인증은 글로벌 인증기관 SGS-TUV Saar의 심사를 거쳤다.



SK하이닉스 IEC 61508 제품 및 프로세스 인증서. /SK하이닉스

이번 산업용 기능안전 인증은 제품과 개발 절차를 함께 검증했다.

LPDDR5X는 가동 중 실시간으로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연속 모드'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로봇 제어 등에 적용할 기반을 갖췄다. 회사는 향후 제품 개발에도 안전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차량용 메모리의 안전 역량을 산업용으로 확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LPDDR5X 차량용 D램으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의 최고 등급인 ASIL-D 인증을 획득했다.

당시 제품에는 고장 알림과 자가 진단·수리 기능 등을 적용했다. 자동차에서 확보한 기능안전 역량을 로봇과 스마트공장 고객 대응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기능안전과 함께 사이버보안 관리 범위도 넓혔다. 이번 CSMS 심사에서는 위협 대응과 보안 요구사항 수립, 설계·검증, 취약점 관리 등 개발·양산 절차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았다.

ISO/SAE 21434는 차량의 기획부터 개발·생산·운영·폐기까지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표준이다. 특정 보안 기술을 지정하기보다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에 초점을 둔다. 이번 인증도 메모리의 해킹 차단 성능 자체보다 제품 개발과 양산 과정의 보안 관리체계를 검증한 것이다.

이같은 관리 역량은 완성차 공급망의 보안 요구와 맞닿아 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차량 사이버보안 규정 'UN R155'는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 관련 위험을 식별·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차량 생산이 끝난 뒤에도 운행 차량의 위협과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규정해 부품 공급사와의 보안 협력도 필요하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에도 이천·분당·청주 국내 사업장의 자동차산업 정보보안 평가체계인 TISAX 인증을 확보했다. 사업장 정보보안에 이어 제품 개발 절차의 사이버보안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고,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직접 공급하는 1차 협력사 고객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봇과 기기 내에서 AI를 구동하는 엣지 AI, 스마트공장으로도 적용처를 넓힌다.

김종환 SK하이닉스 D램개발 부문장 부사장은 "피지컬 AI 시장이 개화할수록 메모리 개발 과정에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과 보안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 테크포럼 이차전지 기술전시 부스에서 장인화 회장이 홍정진 에너지소재연구소장으로부터 고밀도LFP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기술 사업화·AX 전환 가속

광양서 제38회 테크포럼 개최

포스코그룹이 철강·이차전지 소재·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 코어' 전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사업화와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낸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광양에서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38회 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리플 코어는 철강(산업자원), 이차전지 소재(전략자원), 에너지 자원을 그룹의 3대 핵심 축으로 삼는 성장 전략으로, 장인화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성과로 연결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기술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 상품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사업화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에 대한 관점 전환을 주문했다.

행사에서는 '포스코 기술대상'과 올해 신설된 '포스코그룹 AX 어워즈' 시상식도 열렸다. 기술대상에는 총 14건이 선정됐으며, 최고 상금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상은 포스코의 '포스맥(PosMAC) 슈퍼 초고내식 도금제품'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포스텍의 '차세대 증강현실(AR) 디바이스용 메타렌즈 양산기술'이 수상했다. AX 어워즈 최우수상은 물리해석과 AI를 활용해 슬래브 품질 판정을 개선한 포스코 포항 품질기술부에 돌아갔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관리 앱 선봬

스마트폰으로 콘텐츠 편집·배포

LG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콘텐츠와 기기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별도의 PC나 리모컨 없이 화면을 변경하고 기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매장 운영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초저전력 상업용 디스플레이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는 'LG 사이니지 매니저' 앱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LG 사이니지 매니저는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이미지를 편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앱이다.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네트워크 설정부터 배터리 잔량 확인, 콘텐츠 배포까지 관리할 수 있다. 기기 등록 후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 설정하면 디스플레이 상태 확인과 콘텐츠 변경도 가능하다.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는 종이 포스터와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면서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업용 디스플레이다. 이미지 변경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보다 전력 소비가 적어 매장 메뉴 안내와 프로모션 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장 운영자는 앱에서 편집한 이미지를 원하는 시간에 맞춰 디스플레이에 송출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아이폰 듀오', 中서 웃돈 하락에 품질 잡음

애플, 출시 나흘 만에 웃돈 급락
위챗 등 일부 앱 화면 최적화 미흡
디스플레이 결함에 제품 교체 안내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중국 시장에서 출시 초기부터 웃돈 가격의 하락과 품질 논란에 직면했다. 중고 거래시장에서 형성됐던 프리미엄이 빠르게 줄어든 데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최적화와 디스플레이 내구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장 안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만 공상시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중국에서 정식 출시된 아이폰 듀오는 출시 나흘 만에 중고 거래시장에서 붙었던 웃돈이 크게 줄었다. 출시 초기 2000~3000위안에 달했던 프리미엄은 일부 모델에서 수백 위안 수준으로 축소됐다.

아이폰 듀오의 중국 출고가는 256GB 모델 1만5999위안(약 320만원)부터 2TB 모델 2만6499위안(약 530만원)까지다. 출시 초기에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까지 밀리면서 일부 거래시장에서 기본 모델에 1만위안 안팎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애플 '아이폰 듀오'. /애플

공상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기준 256GB 모델의 웃돈은 200~300위안, 512GB 모델은 약 700위안, 1TB 모델은 약 1000위안 수준으로 줄었다. 대만 매체 ETtoday는 중국 매체 중신경위를 인용해 항저우 지역 일부 되팔이 상인인 '황뉴(黃牛)'들이 높은 가격에 확보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서 10만~20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가격 하락에는 공급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망에서는 애플이 주문량을 약 30%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의 화면이 지나치게 커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보조금을 적용한 신제품 판매가격이 공식 출고가를 밑도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에서는 256GB 모델이 보조금 적용 후 1만5799위안에 판매되기도 했다. 반면 애플 공식 판매처에서는 배송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중고 거래시장의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판매 부진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 애플리케이션의 대화면 최적화 문제도 불거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서는 위챗을 비롯한 일부 앱이 폴더블 화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기기를 펼쳤을 때 앱 화면 양옆에 검은 여백이 남는 '블랙바' 현상 등이 지적되자 위챗 측은 관련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내구성 문제도 출시 초기 변수로 떠올랐다. 애플은 지난 10월 26일 일부 아이폰 듀오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교체를 안내했다.

/차현정 기자

SK그룹, CEO 세미나서 내년 AI 전략 논의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HBM·AI DC·에너지 시너지 모색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주재로 CEO 세미나를 열고 내년 인공지능(AI) 전략·그룹 사업 재편 후속 성과 등을 논의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CEO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SK그룹 경영진은 사흘 동안 진행하는 CEO 세미나에서 내년 주요 현안·사업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사업 전략,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사업과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이하 AI DC) 사업, SK이노베이션 에너지 사업 간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AI DC 건설 규제를 강화하고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메모리 시장 수요 변동, 사업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SK그룹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리밸런싱 후속 작업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SK그룹은 올해 SK㈜의 SK실트론 지분 매각, SK이노베이션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 흡수합병 등을 진행했다. 주요 리밸런싱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 제조·업무혁신 AI 우수사례 확산 추진

현대제철이 제조 공정과 사무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제철소 연구소에서 '2026 AI 전환(AX)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올해 추진한 AX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진행한 AX 성과 공모에는 제조 분야 58건, 업무 분야 140건 등 총 198건이 접수됐다. 현대제철은 이 중 48건을 전시하고, 우수사례 15건에 대한 성과 발표와 시연을 진행했다. 이후 심사위원과 임직원 평가를 거쳐 최우수 과제 5건을 선정했다.

/유혜온 기자

6개 시중은행 첫 상생금융지수 평가… 기업·우리은행 '우수'

동반위, 中企 대출 많은 은행 평가
올해 시범평가… 대상 확대 협의 중
231개 대·중견기업 결과도 발표
최우수 44곳, 매우 미흡 13곳 지정
온라인·방산 등 영역 확대 추진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90차 회의를 진행했다. 장인화 동반위원장(앞줄 왼쪽 7번째)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첫 상생금융지수 평가 결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우수'를 받았다. 231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실적 기준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44개사가 '최우수(S)', 69개사가 '우수(A)'를 각각 획득했다. '미흡(C)'은 24개사, '매우 미흡(D)'은 13개사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90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상위 6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2025년 실적)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평가한다.

다만 올해는 시범평가로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이 1차 대상이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감독원의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와 동반위의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를 합산하고 여기에 감점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평가 결과 기업·우리은행이 우수 금융회사로 처음 선정됐다. 다만 시범평가라 나머지 4개사에 대한 결과는 공식 발표에서 제외했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은 "향후 상생금융지수 평가 대상을 지방은행, 국책은행, 저축은행 등으로 넓힐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든든한 동반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놓고 등급체계를 만들지는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총 5개 등급에서 '양호'를 없앴다. 대신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변별력을 강화했다.

올해 처음으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13곳으로 다스, 대방건설,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서울반도체,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에코플라스틱, 오티스엘리베이터,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모빌리티, KG모빌리티, TYM이 이름을 올렸다.

장인화 위원장은 "'매우미흡'에 대한 페널티 여부는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삼성전기, SK실트론, GS리테일, 현대오토에버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15년), SK텔레콤(14년), 현대트랜시스, KT, SK(이상 12년) 등 20개사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이 됐다.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 지수 평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현대트랜시스, 비제조업에서 이노션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삼성E&A(건설), 농심(식품), GS리테일(유통)이 부문별 1위를 기록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로 나뉜다. 평균 62.58점인 실적 평가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고 득점을, SK인텔릭스가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체감도 조사(평균 73.09점)에선 코리아세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교촌F&B가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지수 평가는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면서 "동반성장의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동반성장 온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AI 데카콘 1곳, 유니콘 20곳 육성"

〈2030년까지〉

'딥 다이브 인투 2026'서 전략 발표
AI 초기 유니콘 전략적 발굴부터
AI 펀드, 공동 설계 프로젝트 등 지원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AI 데카콘 1개, AI 유니콘 20개사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유망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발굴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지원 ▲혁신 성장 가속화 ▲글로벌 시장 도약 촉진 등 3개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와 함께 마련한 'AI 스타트업 Beyond 유니콘 육성 전략'을 1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 포럼'(딥 다이브 인투 2026)에서 발표했다.

이번 육성 전략은 스타트업 선별, 집중 지원 과정을 통해 글로벌화를 앞당기는데 핵심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딥 다이브 인투 2026'에서 참석자들과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를 위해 정부, 학교·연구계, 민간이 함께 유니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AI 초기 유니콘'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후보군을 구축할 방침이다. 투자, 고용 등에서 상위 20% 기업을 선별한다.

선별 기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면 유니콘 이상(Beyond)까지 장기간 단계별로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 단계 사업까지 연계되면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AI전략위와 공동으로 AI 유니콘 육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 등 AI 펀드도 공급한다.

국내 AI 산업·인프라 생태계 전체 단계를 수직 계열화해 스타트업 중심의 통합 실증 체계도 구축한다. 공동 설계 검증에도 나선다. AI 팹리스 스타트업·AI 솔루션 스타트업·수요기업을 '하나의 협력체'로 묶어서 공동 설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요가 있는 분야별 대기업 등 제품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실증해 구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고객이 돼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를 AI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1313억 규모'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범

중기부, 2000억 벤처펀드 조성 목표

지역성장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인 1313억원이 전남·광주에서 본격 출범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을 연결할 한국벤처투자 서남권 투자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남광주 순천시 국립순천대 체육관에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13억원 상당의 지역 간 통합 모펀드로, 모태펀드가 750억원을 투자하고 전남광주시, 여수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순천대, 포스코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전북, 울산, 대전, 대구·경북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결성되는 지역성장펀드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조성 및 운영하는 지방 투자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최소 1개 이상 지역성장모펀드를 조성하기위해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 전남광주시, 주요 출자자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 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 자펀드 출자 사업을 개시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서남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4곳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하는 서남권 벤처금융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업할 방침이다.

또 부산의 동남권 투자센터 뒤를 이어 한국벤처투자 서남권 투자센터가 전남광주에 문을 열었다. 서남권 투자센터는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방 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과 VC와의 투자 연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승호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SHE 시스템 바탕 안전환경 활동 강화
위험성 평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안전과 환경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 가치로 삼고 계열사별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사업장 내 잠재 위험을 미리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 개선과 자원순환으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석유화학 계열사가 공동 운영하는 안전환경보건(SHE)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사업 특성에 맞춘 안전환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아차사고를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가 프로세스를 개정해 기록과 모니터링 체계를 명확히 했다. 현장에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안전모,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장비 등을 도입했고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안전점검회의(TBM) 활동의 표준과 교육 체계도 정비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비상 대응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화학 사고에 대비한 자체 훈련을 매월 진행한다. 신규 유해화학물질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설비도 보완했다.

금호리조트는 전 사업장에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공유하는 '아차사고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아시아나컨트리클럽(ACC)과 제주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화순과 아산 사업장으로 인증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오·폐수 최종 방류구의 오염물질 조기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등 생산공정 전반의 환경 관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GS그룹, AIDC 사업 전략적 협업

AIDC 구축부터 철강기술·소재 공급

포스코가 GS그룹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초기부터 철강 소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미래 성장 시장 공략에 나선다.

포스코는 1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그룹과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그룹은 사업 기획과 전력 공급, 설계·시공(GS건설), 액체냉각(GS칼텍스) 등 AIDC 구축과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포스코는 철강 기술력과 소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 효율과 수익성 향상을 지원한다.


포스코와 GS그룹이 11일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희근 포스코 사장, 홍순기 GS그룹 부회장. /포스코

특히 포스코는 사업 초기부터 맞춤형 철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EVI(Early Vendor Involvement)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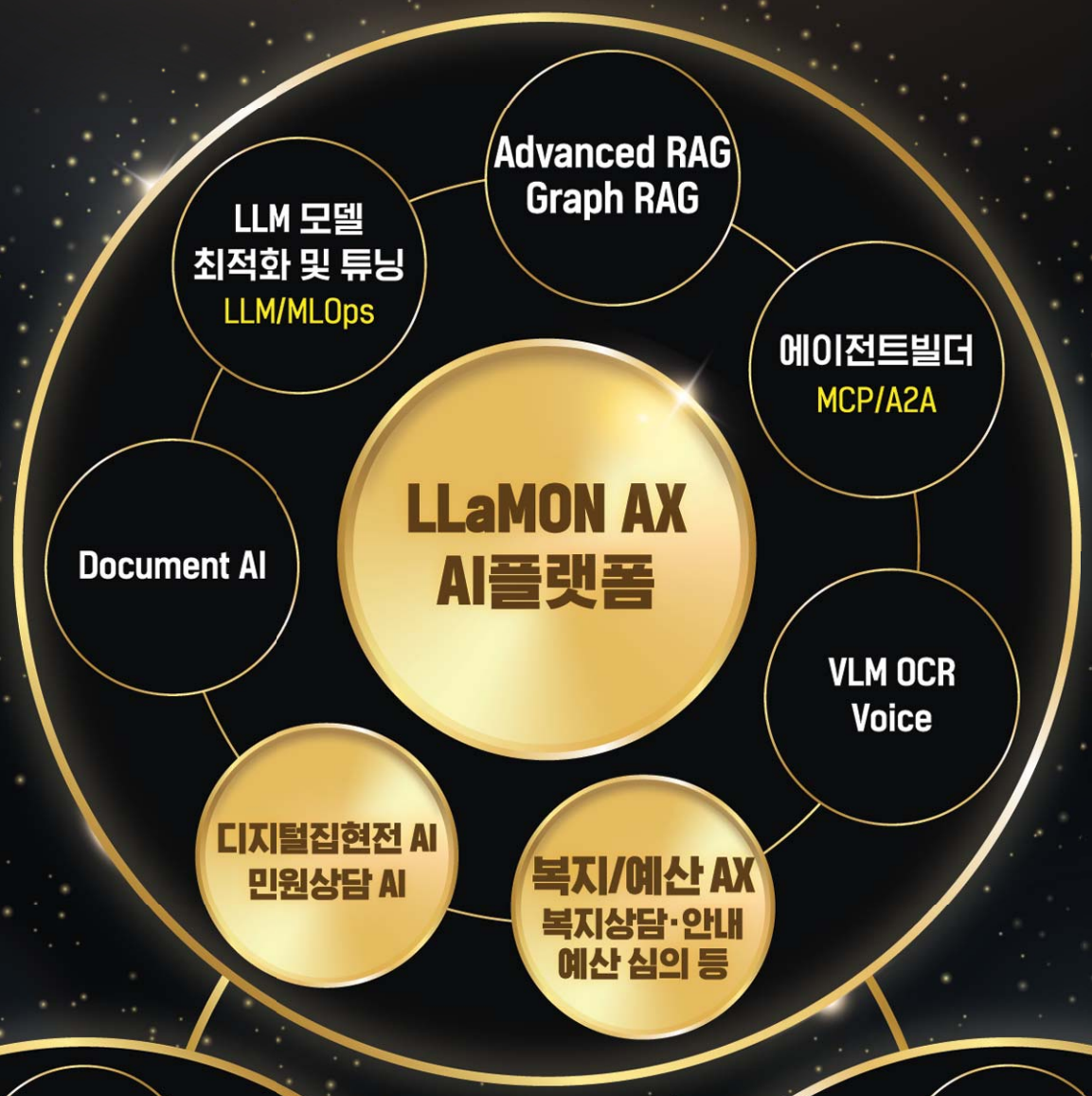
우수조달 제품지정 (제 2026120호)

28 AI INNOVATION

All-in-One AI·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조달우수제품 AI연계통합제품(MESIM AX)을

수의계약 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구매가능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19, 701호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공장 자동화부터 인재 발굴까지… SK AX, 현장형 AI 전환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㊴ SK AX

AI 역량 평가 솔루션으로 인사 관리
美에 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등 공급
2030년까지 전사 AI 체제 구축


김완종 SK AX 사장이 지난 6월 '이매진 AX 2026'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SK AX

SK AX가 현장형 인공지능 전환(AX)에 집중하고 있다. 제조 현장의 지능화와 기업의 AI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등 실행 중심의 AX 사업 모델을 내세우면서다.

◆체질 개선 1년 반…'AX 서비스 파트너'로 탈바꿈

SK AX는 지난해 6월 SK 주식회사 C&C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7년 만이다. IT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기업에서 기업의 AX를 지원하는 서비스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판(이름)부터 바꾸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SK그룹이 2024년 6월부터 추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복 사업 정리를 통해 계열사 수를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이사회에서 SK AX의 사명 변경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6월이다. 당시 사내 조직 개편을 단행해 ICT 사업과 AI 전환 조직을 통합한 'AI 트랜스포메이션(AT) 서비스 부문'을 신설했으며, 이후 AI 컨트롤 타워인 최고AI책임자(CAIO)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출범했다.

동시에 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등 사업 구조도 재편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사업을 약 5000억원에 SK브로드밴드로 넘겼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기계·전력 설계(MEP)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등 소프트웨어 영역을 맡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AX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했다.

◆현장형 AX 속도…북미 제조 솔루션 시장 확대

SK AX는 북미 제조 공장을 겨냥한 사업도 확대 중이다. 기존에는 SK그룹 내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를 만드는 'SKC' 자회사에 스마트팩토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사명 변경 이후에는 글로벌 완성차 부품 공장에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율주행로봇(AMR)과 무인지게차(AFR) 등 하드웨어부터 AI 기반 물류정보시스템(MCS) 등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해 공급망 관리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중이다.

또한 현지 공장의 안전과 운영기술(OT) 관리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로봇 도입과 함께 현지 노동법과 안전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OT 관리 전문 기업인 'AMDT'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해 현지 공장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AI 인재 채용 솔루션 개발…인사관리 시장 공략

기업의 AX 지원은 똘똘한 AI 인재 채용부터 시작된다. SK AX는 올해 AI 역량을 진단하고 선별할 수 있는 솔루션 '지핏 스튜디오'를 선보이며 인사관리(HR) 시장 공략을 알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입사 지원자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해낸다. 이후 심층 면접 단계에서도 AI가 위기 대처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통합 HCM을 공급하는 독일의 SAP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SK AX가 지난 3월 출시한 AX 통합 브랜드 엑스젠틱와이어에 기업자원관리(ERP) 전략 수립부터 운영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이를 SAP 공식 개방형 플랫폼 'AI 에이전트 허브'에 등록해 전 세계 SAP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게 됐다.

한편 SK AX는 2030년까지 전체 업무 과정을 AI 워크포스로 전환해 생산성을 50%로 향상한다는 포부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빅테크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완종 SK AX 사장은 올해 6월 개최한 '이매진 AX 2026' 행사에서 "AI와 협업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AI 증강을 통한 전사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카이스트 구성원에 AI 메일보안 제공

이메일 통한 사이버 위협 탐지·차단
AI 위협 탐지 등 3단계 보안 체계

KT는 카이스트(KAIST) 전 구성원에게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대학 전체에 클라우드 기반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학생, 연구자, 교직원 등 카이스트 전체 구성원이다. AI 기반 위협 탐지와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 체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이메일 공격을 탐지·차단하고, 대학의 주요 연구·교육 자산을 보호한다.

KT가 제공하는 AI 메일보안은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위협을 AI 기술로 탐지·차단하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다. 스팸 차단, AI 기반 위협 탐지, APT 정밀분석 등 3단계 필터링 체계를 적용해 정상 메일로 위장한 피싱 웹사이트주소(URL)와 악성파일 등 지능형 위협에 대응한다. 올해 6월에는 AI 메일보안 솔루션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획득했다.



카이스트 교직원들이 교내에서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다. /KT

특히 기존 구축형 APT 보안 솔루션과 달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스팸·AI·APT 보안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별도의 대규모 보안 인프라 구축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이용 규모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고도화된 이메일 보안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KT는 이를 계기로 AI 메일보안 사업을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주요 연구·교육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보안 인력과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관에서도 AI 기반 위협 탐지와 APT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NHN클라우드, 상명대와 바이오헬스 협력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엔에이치엔(NHN)클라우드가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바이오헬스 분야 클라우드 활용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클라우드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분야의 클라우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연구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연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을 갖추도록 기술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찾는다. 사업단과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기술검증(PoC)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전공 학생에게 필요한 클라우드 역량을 검토하고, NHN클라우드 자격증(CES)과 연계한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한다. 두 기관이 작년


(왼쪽부터) 김동준 NHN클라우드 공공사업부 전무, 김동근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N클라우드

부터 진행해 온 'COSS&NHN클라우드'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클라우드·AI 관련 교과목 자문과 전문가 특강,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교육 협력에 더해 연구와 플랫폼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양측은 졸업생·재학생과 산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기회도 찾을 예정이다.

/김보민 기자 kbm@

LGU+, 동반성장지수 8년 연속 '최우수'

중소 협력사와 상생 프로그램 운영

LG유플러스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금융, 기술개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정거래협약을 기준으로 130~150여개 중소 협력사와 공식 협약을 맺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은 월 4회,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등을 앞둔 시점에는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안정화를 돕고 있다.

재정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7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300억원 규모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론', '상생결제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사에는 직접 개발한 장비와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NW장비 테스트베드'와 'IoT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도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ESG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2013년부터 주요 협력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동반성장보드'를 통해 양방향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정기적으로 동반성장간담회를 열어 협력사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 제도와 거래 관행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KT텔레캅, 독거노인 등 AI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KT그룹의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전국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AI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수주한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차 사업'의 결과물이다. 해당 사업은 KT텔레캅 수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5년간 총 769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앞서 9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자연어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거주지에 화재·활동·출입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AI 케어콜'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KT텔레캅 돌봄케어 관제센터와 119가 연결돼 24시간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친다.

또한, 전용 돌봄앱과 활동감지앱을 도입해 현장 응급관리요원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조민선 기자

돈 버는 AI냐 밑 빠진 독이냐… 앤트로픽 IPO '시험대'

기업가치 1.4조달러… 19일 상장 추진
3분기 매출 47% 늘고도 적자 전환
컴퓨팅·인프라 약정 9009억달러



지난 2월26일 미국 뉴욕의 컴퓨터 화면에 앤트로픽의 홈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된 모습. /뉴시스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됐다. 상장 주관사는 앤트로픽의 매출이 5년 만에 약 150배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연간 잉여현금흐름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0년으로 잡았다. 클로드를 쓰는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도 더 필요하다. 고객에게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최대 1조4000억달러의 몸값이 달렸다.

10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70~78달러다.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19일 나스닥에서 종목코드 'ANT'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기업가치는 스톡옵션 등 향후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까지 포함해 약 1조4000억달러다. 지난 5월 투자 유치 당시의 9650억달러보다 높고, 시장에서 한때 거론된 2조달러보다는 낮다.

공모 물량 8억2500만주 가운데 약 8억135만주는 신주이고, 약 2365만주는 공동창업자 7명이 내놓는 구주다.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 규모는 약 644억달러다. 구글·엔비디아 등 7개 기업에 배정한 사모 물량 260억달러를 합치면 전체 주식 매각 규모는 최대 904억달러다. 이 중 구주 매각 대금은 공동창업자들에게 돌아간다.

◆ 매출 150배 전망…기업 고객이 86%

블룸버그는 IPO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앤트로픽의 매출이 지난해 45억9000만달러에서 2030년 68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가 잠재 투자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전망이다. 2030년 예상 매출 가운데 5860억달러, 약 86%를 기업 고객에게서 벌어들인다는 계산이다. 기업들이 클로드를 도입한 뒤 실제 업무에 쓰는 범위와 사용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이 전망을 좌우한다.

기업 고객의 사용량이 늘면 매출이 커지는 동시에 이를 처리할 연산 자원도 더 필요해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매출을 1360억달러로 올해 예상치인 520억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잡으면서도, 같은 해 영업손실이 404억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영업흑자 전환 예상 시점은 2029년이다.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에서 설비투자비를 뺀 잉여현금흐름은 내년 657억달러 순유출을 거쳐 2030년에야 연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실적에서도 비용이 매출 증가분을 앞질렀다. 앤트로픽의 3분기 매출은 약 170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47% 늘었지만, 영업손익은 2분기 9억7400만달러 흑자에서 3분기 5억67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3분기 매출의 절반이 넘는 약 99억달러가 컴퓨팅·인프라 비용으로 들어갔다. 회사는 장기 계약을 맺어둔 컴퓨팅 자원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사용하기 12~18개월 전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는 만큼 수요가 예상과 달라져도 비용을 바로 줄이기 어렵다.

◆ 공급사가 투자자로…전력까지 확보

이처럼 수요에 앞서 연산 용량을 확보하면서 앤트로픽의 구매·임차 약정은 약 9009억달러로 불어났다. 대부분이 컴퓨팅·인프라 계약이다. 회사는 이 가운데 약 4516억달러가 2030년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IT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앤트로픽이 최근 한 달 사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에 대한 클라우드 사용 약정을 약 100억달러 늘렸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구글과 MS는 이번 상장에서 앤트로픽 주식도 사들인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각각 약 100억달러를 투자하고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MS, TSMC도 사모 발행에 참여한다.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유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투자 유치 때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이번 사전 배정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앤트로픽이 연산 용량을 늘리면 반도체와 클라우드 공급사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앤트로픽에는 그 용량을 유료 고객의 사용량으로 채우는 일이 남는다. 수요를 예상해 계약을 맺어도 필요한 시설이 제때 들어선다는 보장은 없다. 클라우드 업체 람다와 맺은 413억달러 규모의 계약 중 349억달러에 해당하는 계약은 람다가 기한 내 데이터센터 시설을 임차하지 못하면서 양측이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앤트로픽은 "현재로선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력은 발전설비를 직접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FT는 앤트로픽이 지난 9월 말 텍사스 발전설비 공급업체 원파워솔루션스와 34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발전기 납품에 수년이 걸리자 원파워솔루션스가 캐터필러에 미리 발주해 둔 1.7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 발전기 물량을 넘겨받기로 했다. 반도체와 서버를 확보해도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고객에게 제공할 연산 용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AI 투자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이번 공모가 월가의 투자 심리를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앤트로픽이 기업 고객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그 고객에게서 번 돈으로 장기 인프라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공모가에 반영된다.

제프 젤 IPO부티크 선임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잡은 기업가치가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격을 높여 부를 여지를 준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주주만 웃는 '의무공개매수법' 수정 요구

글로벌 투자자들 "재검토해야" 주장
지배주주 산 뒤 50%+1주만 공개매수
ACGA·ICGN도 법안 수정 촉구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매수 방식이 자본시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매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 집중돼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투자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보다 현행 법안의 매수 방식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가 기존 지배주주로부터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해당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확보하도록 하는 구조다.

글로벌 투자자 단체들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매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여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매수 기준을 50%+1주로 유지하더라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처음부터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하고 청약 물량이 초과하면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8일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가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내 운용업계에서도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직접 답글을 달기도 했다. 김 대표 역시 경영권을 매각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매수 청약이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롯데렌탈은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얻은 사례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TPG의 렉시콘코리아홀드코는 지난 8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로부터 롯데렌탈 지분 61.17%를 인수한 데 이어 잔여 지분 38.83%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섰다. 공개매수 가격은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동일한 주당 5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 지급된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매수 발표 이후 롯데렌탈 주가는 공개매수가인 5만90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법안에 담긴 내용대로 시행되면 이 같은 거래 구조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법안은 경영권 지분을 먼저 인수한 뒤 의무공개매수를 통해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지분을 50%+1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일반주주 전체에 지배주주와 같은 매도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구는 소액주주의 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과도 연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 프리미엄을 누리고 일반주주는 기업가치 재평가의 기회에서 소외될 경우 주주 간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투자자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AI 기업 부도에 베팅하는 CDS ETF 출격

美 터틀 캐피탈·디파이언스 ETFs
AI 기업 CDS 반영한 ETF 출시 신청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부도 위험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디파이언스 ETFs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I 기업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반영한 ETF 출시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틀 캐피탈은 AI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 수익을 얻는 5종의 액티브 ETF를, 디파이언스는 코어위브, 오라클, 메타플랫폼 등이 포함된 4종의 ETF를 신청했다.

CDS는 기관투자자들이 부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파생상품인데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ETF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구축 투자가 단기간에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친 상황을 겨냥한 상품이다.

나스닥종합지수가 10월 고점 대비 15% 떨어지는 동안 AI 관련 기업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김아영 기자 aykim@

두나무 디콘서 디지털자산 미래 전략 논의

업계·정치권, 한국형 성장 해법 모색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디콘은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L to Bloom)'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이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과 역량을 축적하며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증명의 역사'로 정의하며 "어두운 시기의 노력이 다음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산업은 계속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에 앞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인·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1거래소-1은행'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김성환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 내년 1월 착공"

〈기후부 장관〉

광주 광산구·변전소 후보지 점검
타 지역 변압기 사용 없이 신규 발주
이달까지 동서울 변환소 주민 협의



11일 전남광주 서구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변전소 후보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후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주민 반대로 지연 중인 동서울 변환소 증설은 이달까지 협의 후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 경과지인 광주 광산구와 변전소 후보지(광주 서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광산구 전력공급선로 경과지를 찾은 김성환 장관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건설 계획 및 공사 여건을 보고받았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는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체결 및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현재 설계 용역이 발주 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수직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해 적기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서구 변전소 후보지를 방문해 호남의 풍부한 발전력을 산단으로 끌어올 핵심 관문인 변전소 건설 계획을 점검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대구 등 타 지역에 들어설 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 로 했다. 김 장관은 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했던 일이긴 하나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닌 신규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타지역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팹 규모 확대에 대비한 추가 변전소 건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동서울변환소, 이달 중 합의 총력… 여의치 않으면 특별법 적용"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증설은 주민 협의에 나서돼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대략 일주일 정도 더 논의하면 합리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달 중에는 주민들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절차 개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력망특별법은 지자체가 한전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요청 후 60일 내 회신이 없으면 요청이 수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의 종착지로 2027년부터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핵심 시설이다.

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정부는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복댐 증축이 지역 상생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 대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기대, 아태지역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성 공유

'한-ILO 아시아·태평양 포럼' 개막
디지털 전환·노동시장 변화 대응
글로벌 TVET 협력 네트워크 강화

2026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I-KORP)의 일환인 '한-ILO 아시아·태평양 포럼'이 11일(현지시간) 개막했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은 이날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ILO가 함께 추진해 온 2024~2026년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개막식에는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ILO, ITCILO(ILO 국제훈련센터) 및 국내 직업훈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의 정부·직업훈련기관 관계자 100여 명도 사흘간의 일정에 합류한다.

참석자들은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몽골·태국 등 5개국에서 추진한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한다. 공공전환, 청년고용, 디지털·녹색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대화 등 주요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2027~2030년 차기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의 직업훈련 경험을 각국의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ILO와 가나·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정책 및 협력 수요도 소개한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축적한 교육협력 경험을 아프리카로 확장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다룬다.

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은 한기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직업훈련교사 양성부터 디지털 교육훈련, 국제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이르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한다. 글로벌 TVET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대와 ILO 국제훈련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TVET 석사과정도 소개된다. 양 기관은 교육 전문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석사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TVE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녹색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 속에서 직업교육훈련(TVET)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념처럼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사람은 미래를 바꾸는 주체'인 만큼, 모든 사람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0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디지털·AI 항만, 물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

부산항 디지털·스마트항만 전환 속도

부산항만공사-삼성SDS '맞손'
부산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부산항만공사가 삼성SDS와 '디지털·AI 항만, 물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IT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항의 디지털·AI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그간 양측은 상호 간 물류 시스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기술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공사는 밝혔다.

지난 10일 맺은 협약에 따라 ▲글로벌 물류 분야 디지털 연계 ▲스마트항만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업무 정기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의 항만 운영 전문성과 삼성SDS의 글로벌 물류·인공지능(AI)·디지털트윈·클라우드 및 IT서비스 역량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부산항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또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에너지공단-동서발전,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O&M 시장 국산 표준 모델 정립해
실전형 전문 인재 적기 공급 박차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좌우할 유지보수(Q&M)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양사는 지난 10일 울산 동서발전 본사에서 '해상풍력 유지보수(O&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했던 국내 해상풍력 O&M 시장에 국산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실전형 전문 인재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에너지공단이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구축 중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 국내 해상풍력 유지보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47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261억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는 연면적 5776㎡ 규모로 ▲3차원 대형 훈련 수조 ▲헬리콥터 해상 추락 탈출 시뮬레이터(HUET) ▲풍력발전기 주요 설비 점검 훈련 장비 ▲무인잠수정(ROV) 등 실제 해상 환경과 흡사한 특수 훈련 및 실증 장비들을 갖추게 된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울산 중구 동서발전 본사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유지보수(O&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은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센터 준공에 맞춰 세부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시범 운영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푸드위크코리아' 1400만弗 수출계약 성사

농식품부, 현장계약 47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푸드위크코리아 2026'에서 14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4~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코리아에서 수출상담 2937건 및 현장계약 47건의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계약액은 1400만 달러로 1년 전 행사 때보다 18% 증가했다.

올해 행사에는 46개국 식품기업 약 1000곳과 바이어 252곳이 참가했다. 전시부스 1622개가 운영됐으며 관람객 수도 지난해 5만5000명에서 올해 5만6000명으로 늘었다. 신선 과채류와 전통주의 현장 계약액은 약 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5% 증가했다. 전체 현장 계약액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사장에서는 전통주를 소개하는 'K-주막' 라이브 쇼케이스와 신선 과채류·전통주 시식·시음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미국의 대형 급식·유통 관계자들은 불고기 양념소스 등 한국 소스류와 식자재의 현지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국내 기업들과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완제품 판매뿐 아니라 현지 급식·외식업체의 메뉴에 한국 식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현장에서는 '고숙도 딸기 수출 시범사업'을 위한 생산자-수출업체-싱가포르 바이어 간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농가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한국산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맘원동 브라더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매하기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티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전통예술 일상 속으로… 부산, 국악 교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인터뷰

박 성 범 국립부산국악원장



◆ 프로필

▶ 성 명: 박성범(朴城範 / Park, sung-Bum)
▶ 출생년도: 1972년
▶ 주요경력
-[2026년 8월]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2020년 2월 ~ 2026년 8월]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2015년 5월 ~ 2020년 2월]
국립국악원 장악과, 국악진흥과
▶ [2011년 8월 ~ 2015년 5월]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
국립부산국악원 장악과장
▶ 최종학력
-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 석사
- 단국대학교 국악과 학사

국립부산국악원이 영남권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이자 동아시아 전통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공연 콘텐츠 확대와 국악 연구 활성화, 미래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 지역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Q. 국립부산국악원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

“국립부산국악원은 2008년 개원 이후 부산 지역의 유일한 국립전통예술기관으로서 공연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남권 전통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우선 신년음악회와 정기공연, 기획공연, 송년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층을 넓힐 계획이다. 지역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도 개발해 시민들이 전통음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악 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의 학술단체와 협력하는 국악 학술 주간을 운영하고 일본과 중국, 몽골 등 인접 국가의 학술단체와도 교류해 국내 국악 연구의 중심을 넘어 동아시아 학술연구의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문화교류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도 추진한다. 크루즈 관광객과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통공연을 마련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예술 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한국 전통음악의 해외 보급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Q. 국립부산국악원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국립부산국악원은 개원 이후 다양한 공연과 교육 사업을 통해 부산의 전통예술을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는 공연과 연구,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전통예술의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국내외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Q. 제5회 대학국악축제 ‘지음’의 성과와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2일 개최한 제5회 대학국악축제 ‘지음’에는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 120여 명이 출연했다. 영남권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국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축제는 대학 간 경계를 넘어 청년 국악인들이 함께 연주하며 유대감을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 학생들은 공동 무대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청년 국악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국악체험관을 중심으로 미래 국악인 양성과 시민 대상 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국악체험관은 영남 지역의 전통예술 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국악을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예술가나 애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현재 유아 국악체험과 어린이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국악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을 위한 국악문화학교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령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악을 배우고 즐길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Q. 시민들이 국악원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점심콘서트와 음반감상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공연장을 찾는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이 공연과 교육, 문화 향유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한다면 전통예술을 경험하는 시민층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의 전통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시민과 청년 예술가, 국내외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부산의 국악 문화가 더욱 넓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❶ 대청여관 ❷ 무용단정기 ❸ 연희부 각 공연 모습들.

영남권 전통예술 발굴·계승 앞장
정기·기획무대로 관객층 넓혀
지역 특색 살린 공연 콘텐츠 개발
동아시아 학술협력으로 연구 활성화
해외 기관과 문화교류 기반 구축

대학국악축제로 청년 예술가 육성
세대별 맞춤 교육·체험 기회 확대
국악체험관 중심 미래 인재 양성
점심콘서트로 시민 문화향유 지원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전통공연 추진





“커피에 주얼리, 과자는 전통문화”… 이색 협업으로 고객 잡기

유통업계, 차별화로 소비층 확대

네스프레소, 스와로브스키 한정판
누데이크, 마르지엘라 티웨어 공개
롯데웰푸드, 빼빼로에 궁궐 단청
KFC, 마블 캐릭터 활용 메뉴 선봬



네스프레소 X 스와로브스키 페스티브 한정 컬렉션. /네스프레소

유통업계가 패션·주얼리·전통문화·영화 등 이종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품에 다른 분야의 디자인과 콘텐츠를 접목해 차별화된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협업 브랜드의 팬층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스프레소와 누데이크, 롯데웰푸드, KFC 등은 최근 서로 다른 분야의 브랜드 및 기관과 협업한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커피 액세서리에 주얼리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과자 패키지에 전통 건축 문양을 담는 등 기존 제품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협업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중시하는 소비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올해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8%는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에 더 지출하고 싶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관심사와 취향을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이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네스프레소는 최근 크리스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와 손잡고 연말 시즌 한정 ‘페스티브’ 컬렉션을 출시했다. 시즌 한정 커피 3종과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 디자인을 적용한 액세서리로 구성했다.

트래블 머그에는 반짝이는 표면 마감을 적용했으며, 머그 홀더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36개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을 더했다.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리지널·버츄오 커피 캡슐 모양을 본뜬 크리스털 오너먼트도 선보였다. 커피 제품의 형태를 장식품으로 재해석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는 지난달 30일 패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와 협업한 ‘Oops(웁스)’ 티 컬렉션을 누데이크 티 하우스에서 공개했다. 비정형적인 조형미와 우연성을 콘셉트로 차와 티웨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두 개가 한 쌍으로 연결된 티백을 비롯해 메종 마르지엘라의 상징적인 비앙케토 화이트 색상과 비대칭적인 형태를 반영한 찻잔, 소서, 티팟, 텀블러 등을 선보였다. 티팟에는 링 장식과 스티치 마감을 적용했으며, 텀블러는 블랙 뚜껑과 화이트 본체의 대비를 강조했다.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을 식음료 제품과 식기류로 확장한 사례다.

전통문화와의 협업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29일 국가유산청과 협업한 ‘빼빼로 궁궐 단청 에디션’을 출시했다. 조선 왕실의 주요 의식이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에서 영감을 받아 검은색 패키지에 다채로운 색상의 단청 꽃문양을 담았다.

제품은 오리지널·아몬드·크런키 등 빼빼로 6종으로 구성됐으며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 한정 판매된다. 롯데웰푸드는 2024년부터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빼빼로 패키지를 선보여 왔다. 이번에는 궁궐 건축의 단청 문양을 활용해 일상적인 과자 패키지에 전통문화 요소를 접목했다.

영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메뉴 협업도 등장했다. KFC는 지난 10일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협업한 시즌 한정 메뉴 ‘둠 시리즈’ 5종을 출시했다.

메뉴는 ‘둠징거’와 ‘둠트리플다운’ 등 버거 2종, ‘둠프라이’와 ‘둠에그타르트’, ‘둠너겟’ 등 스낵 3종이다. 닥터 둠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검은색을 활용했으며, 할라피뇨와 청양고추의 매콤함을 살린 ‘둠 할라피뇨소스’와 레드와인 풍미의 ‘둠바비큐소스’를 개발했다. 둠징거에는 검은색 브리오쉬 번을, 둠에그타르트에는 초록빛 비주얼을 적용해 영화 속 캐릭터의 특징을 메뉴에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종 협업이 기존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협업 상대의 인지도와 팬덤을 활용해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단순한 공동 마케팅을 넘어 제품 디자인과 맛, 콘텐츠에 각 분야의 정체성을 결합하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구매 경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탈리아 스마트 오븐에 ‘한식 맛’ 담는다

더본코리아, 伊 우녹스와 업무협약
TBK 소스 활용한 표준 레시피 개발

더본코리아가 이탈리아 스마트 오븐 전문기업 우녹스(UNOX)와 손잡고 유럽 시장 내 한식 사업 확대에 나선다. 자체 개발한 TBK 소스를 활용한 한식 레시피를 우녹스 오븐에 탑재해 현지 외식업체의 한식 도입 문턱을 낮추고, 글로벌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4일 이탈리아 우녹스 본사에서 우녹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본코리아의 한식 메뉴 개발 역량과 우녹스의 스마트 오븐 기술을 결합해 유럽 시장에서 사업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0년 설립된 우녹스는 상업용 스마트 오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3억6000만유로(약 53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콤비 오븐에는 1000개 이상의 음식 레시피 조리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메뉴에 따라 조리 시간과 온도, 습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양사는 TBK 소스 11종을 활용한 한식 메뉴 조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주요 조리 조건을 데이터화해 표준 레시피와 운영 매뉴얼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식 조리 경험이 부족한 현지 인력도 일정한 맛과 품질의 한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더본코리아는 한식 레시피가 우녹스 오븐에 탑재되면 이탈리아 본사에서 열리는 조리 시연회를 통해 글로벌 외식기업 바이어와 셰프들에게 TBK 소스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연회에서 소스를 접한 해외 기업 관계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추가 조리 시연을 진행하는 등 사업 협력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다.

독일 대형 유통그룹 글로버스(Globus)와의 협력도 유럽 시장 공략의 한 축이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글로버스 하이퍼마켓 푸드코트 1·2호점에 TBK 소스와 표준 레시피를 공급하는 글로벌 푸드 컨설팅 방식으로 진출했다. /신원선 기자

“세계 커피·디저트 트렌드 한자리에”

제25회 서울카페쇼 개막


지난해 열린 서울카페쇼 현장.

제25회 서울카페쇼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했다.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5개국 643개사, 3988개 브랜드가 참가해 커피와 차, 베이커리, 디저트, 장비·설비 등 카페 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 주제는 ‘활짝-커피가 더 나아지게, 커피로 더 나아가게’다. 전시장은 A~D홀로 나눠 운영한다. A홀에서는 카페 창업과 운영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B홀에서는 차와 음료, 디저트, 테이블웨어 등을 소개한다. C홀에는 국내 58곳과 해외 20곳 등 78개 로스터리가 참여하는 ‘커피앨리’와 올해 처음 마련된 ‘베이커리앨리’가 들어선다. D홀에서는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와 프리미엄 커피 장비 등을 선보인다.

1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100대 커피숍’을 발표한다. 커피 품질과 로스팅·추출 전문성, 공간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 100곳을 공개한다. 제15회 월드커피포럼도 14일까지 열리며,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주제로 커피 산업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다룬다. /신원선 기자



침구 연합전. /롯데온

롯데온, 겨울 침구 기획전

롯데온이 겨울철을 앞두고 침구 상품을 한데 모은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온은 오는 15일까지 ‘포근함을 채우는 FW 침구 연합전’을 열고 탄소매트와 구스이불, 극세사, 양모 등 겨울 침구 상품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탄소매트 카테고리에서는 파르페by알레르망의 ‘NEW 더웜 에센셜 알러지케어 워셔블 탄소매트’와 깃든의 ‘탄소매트 전기요 깃든 온’ 등을 10만원대에 판매한다. 구스이불로는 소프라움의 ‘쇼팽2026 폴란드산 구스 이불솜’(50만원대) 등을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식품 제조공정 AI 전환 본격화

산업부 AI Factory 사업 참여

CJ제일제당이 식품 제조현장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설비와 공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생산 조건을 최적화하고 품질 관리와 설비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까지 관리하는 자율제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산업통상부의 AI Factory 지원사업에 식품업종 대표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프레딕트, 아이벡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PINN 모델 및 Physical AI 기술 적용 F&B 자율제조 및 통합 예지보전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팩토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전환(DX) 역량을 바탕으로 식품 제조업에 특화된 AI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로 다른 설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분석하는 AI 레디(AI-Ready)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 특성과 센서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PINN(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예측·제어할 방침이다.

품질 관리에도 AI를 접목한다. 머신비전과 로봇, 엣지AI 기술을 결합해 이물과 제품 파손, 포장 불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설비 제어와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AI 기반 설비 이상 감지·진단 시스템을 통해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비계획적인 가동 중단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업자 안전 관리에는 AI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다. /신원선 기자

CGV, 영화관 대관 온라인 예약·결제 도입

상영관·시간대 선택부터 결제까지

CGV가 영화관 대관 서비스를 온라인 예약·결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대관 신청 후 담당자 확인과 별도 상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상영관과 시간대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CGV는 상영관 대관 서비스 ‘MY CINEMA’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의 핵심은 ‘바로 대관 예약’ 기능이다. 기업 행사와 단체 관람은 물론 가족·친구 모임, 팬덤 행사, 기념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CGV 모바일 앱의 ‘바로 대관 예약’ 탭에서 희망 극장과 날짜, 인원 등을 입력하면 된다. 예약 가능한 상영관과 시간대를 확인한 뒤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예약이 확정된다. 기존 영화 상영 일정과 연계해 이용 희망일보다 최소 3주 앞서 예약할 수 있다.

CGV는 상영관 조회부터 예약과 결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우선 전국 34개 상영관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뒤 현장 적응과 운영 안정성, 고객 반응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전국 극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데이터 주권부터 규제 혁신까지… K-바이오 도약 해법 모색

'2026 바이오 미래 포럼' 개최
정부, 9000억 'K문샷' 사업 추진
식약처, 상담·규제 완화 등 지원
"산업계 협력해 경쟁력 키워야"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 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가 'AI 대전환과 소버린 바이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의 결합이 가져온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집중 조명됐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생존 전략은 데이터 주권에 기반한 '소버린 바이오' 구축과 신약개발 전주기를 아우르는 규제 혁신에 있다.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주관의 '2026 바이오 미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경쟁력으로 인공지능 연구 시대에 발맞춘 정부의 정책과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밀착 조력이 꼽혔다.

우선 인공지능(AI)으로 가설 수립, 실험, 검증 등을 주도하는 '통합 과학'으로 글로벌 R&D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인 소버린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는 "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바이오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1명의 연구자가 수천 명의 AI 에이전트를 운용해 24시간 만에 논문 분석과 가설 검증을 완성하는 방식이 가능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연구 생산성 극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타 리뷰 시스템을 통한 유전정보, 검진, 진료, 약물 처방, 예방 접종 등 파편화된 의료·바이오 공개 데이터를 자동 연계·분석함으로써 종합 리포트를 도출하는 구체적 설계 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총 24개의 K문샷 사업에 총 9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오는 2027년 한 해에만 총 1838억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남진우 K문샷 인공지능(AI) 신약 PD는 2035년까지 AI와 자율실험 체계를 연계해 후보 물질 발굴 속도를 10배 높이고 임상 성공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추진 계획을 알렸다. 조일주 K문샷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 PD 역시 10년 내 뇌 임플란트 상용화를 목표로 뇌-컴퓨터-인터페이스 원천기술 및 영장류 전임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임상 실패율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제약·바이오 특유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주기 맞춤형 사전 상담과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앞세워 실질적인 제품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희성 사전상담과장은 비임상부터 허가 신청 전까지 다루고 있다. 전체 상담 품목의 62%가 개발 단계 기준, 한 단계 이상 상승했고 중대·희귀질환 치료제를 집중 관리하는 '길잡이 프로그램' 대상 품목(36개)의 경우 단계 상승률이 75%에 달한다.

현재까지 사전 상담을 거쳐 총 48개 품목(의약품 6개, 의료기기 42개)이 상용화에 성공했고 62개 품목이 임상에 진입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이 자체개발한 국산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은 허가 신청 8개월 전부터 가동된 사전 상담 협의 체계를 통해 256일 만에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의 'GI-102', 한미약품의 '벨바라페닙' 등 항암 신약 후보물질도 길잡이 지원을 거쳐 임상 2상에 안착했다. 식약처는 전용 유선 창구인 혁신제품 사전 상담 핫라인 운영과 고대의료원 등 임상 현장 연계를 강화해 규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생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장벽은 과감히 걷어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리더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FDA "위고비·마운자로, 시력 손상될 수도"

제품 설명서에 경고문 포함 요구
식약처, 의료진에게 안전성 서한 배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당뇨병 치료제인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약물이 드물게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제품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등 신속한 국내 안전 조치에 돌입했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FDA는 지난 9일(현지시간) 안전성 공지를 통해 GLP-1 계열 약물들이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 시신경병증(NAION)'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AION은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일으키며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남길 수 있다.

FDA는 2024년 말 부작용과 약물 간의 연관 가능성을 처음 파악한 뒤, 13만4000명 이상의 환자가 참여한 연구와 이상반응 보고를 검토해 왔다. 분석 결과, GLP-1 계열 약물 복용자 10만 명당 매년 약 6건의 NAION이 발생해, 위약이나 다른 당뇨병 치료제 복용자(10만 명당 약 4건)에 비해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부작용 유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대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수십 명의 환자가 시력 상실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나, 제약사 측은 약물이 NAION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식약처도 국내 환자와 의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날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들에게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서한에는 GLP-1 계열 의약품 투여 환자에게 NAION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약 전문가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며, 환자 역시 관련 증상 발생 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처방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들에 관련 허가 변경 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후 시력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심 사례가 1건 접수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아오츠카 김준하號 출범, 현장 경영 시동

고객 중심·현장 존중·인재 육성 제시
연구·생산 출신 신임 대표이사 사장

동아오츠카 김준하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고객 중심·현장 존중·인재 육성을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와 생산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동아오츠카 역사상 연구와 생산 분야를 거쳐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첫 사례다. 그는 수십 년간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생산 운영 등을 경험하며 쌓은 현장 이해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포카리스웨트와 나랑드사이다 등 기존 브랜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도 강조했다. 영업과 물류, 생산 등 각 현장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좋은 전략은 회의실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성과는 언제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동아오츠카 김준하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향후 경영 철학과 포부를 밝히며 고객 중심·현장 존중·인재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동아오츠카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동시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역량과 시야를 넓히고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올리브영, AI 대화형 쇼핑 도입

신조어 파악하고 사진 분석 가능

CJ올리브영이 수천만 건의 뷰티 데이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접목해 뷰티 신조어 파악부터 사진 분석까지 지원하는 대화형 도구를 도입한다. 기존 키워드 검색 중심의 쇼핑 방식을 실시간 소통하는 초개인화 구조로 전환한다.

올리브영은 생성형 AI 기반 쇼핑 도구 '올영 티키'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영 티키는 AI가 고객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 설치 없이 올리브영 앱 내 검색창 오른쪽의 아이콘만 누르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피부 고민이나 목적에 맞는 상품 추천과 비교는 물론 화장품 사용법, 피부 관리법, 매장별 재고 조회, 온라인몰 이용 안내까지 쇼핑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올리브영이 축적한 수천만 건의 상품·리뷰 데이터와 뷰티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검색어나 질문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피부가 번들거려' 같은 일상적 표현부터 '수부지(수분 부족 지성)인데 화잘먹(화장이 잘 먹는) 선크림 추천해줘'와 같은 신조어와 줄임말까지 문맥을 정교하게 이해해 답변한다.

질문은 키보드 입력 외에 음성, 사진 촬영, 바코드 스캔 등으로 이뤄지고 대화 흐름에 맞는 후속 질문도 이어진다.

올리브영은 이달 말까지 약 10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올영 티키를 시범 운영한 뒤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하여 오는 12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성별, 연령, 구매 이력, 배송지 등을 분석해 첫 화면을 다르게 구성하는 '개인화 메뉴'와 멤버십 등급별 혜택 맞춤 노출 기능 등을 올영 티키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직관적이고 스마트한 쇼핑 환경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간편하게 마시는 멀미약 선봬

물 없이 마시는 액제형 멀미약 '판롱액'

자동차를 탄 장거리 이동이나 비행기 여행, 배 탑승 등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거리인 '속 울렁거림'을 달래줄 다정한 꼬마병이 찾아왔다. 동화약품은 물 없이 톡 따서 마시는 액제형 멀미약 '판롱액'(사진)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판롱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디멘히드리네이트, 카페인무수물, 니코틴산아미드 등을 복합 처방했다.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시 나타나는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멀미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해 준다.

1회 용량은 30mL이며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면 된다. 추가 복용은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루 최대 3회까지 복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우용**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거래소, 부산지역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5000만원 전달

초·중·고교, 대학까지 지원
6년간 2억9000만원 전달



11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체육꿈나무 청소년을 위한 후원전달식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1일 부산 지역 체육꿈나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KRX국민행복재단 정상호 사무국장과 부산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체육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장학금은 초·중·고교 선수 30명과 초·중·고교, 대학교 각 1개 팀에 지원된다.

거래소는 지역의 유망한 청소년 선수들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2021년부터 체육꿈나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6년 동안 부산지역 체육꿈나무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모두 2억 9000만원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체육인재를 키우는 일은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뜻깊은 지원"이라며 "청소년 선수들이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LG화학의 'K-뉴딜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수료를 축하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LG화학

LG화학, 청년 AI 직무역량 교육

K-뉴딜 아카데미 1기 수료식
직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LG화학이 현직 임직원의 현장 노하우를 담은 실전형 인공지능(AI) 교육으로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섰다.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AI 활용법과 직무 역량을 직접 가르치면서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LG화학은 전남 여수시 화치연수원에서 K-뉴딜 아카데미 'Let's Grow with LG화학' 1기 수료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Let's Grow with LG화학'은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직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 과정에는 약 150명이 참여해 12주 동안 화학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이해, 직무 역량,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AI 활용 등을 배웠다. LG화학은 올해 모두 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강의는 국가품질명장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들이 맡았다. 교육생들은 산업 트렌드와 실무 경험을 배우며 화학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AI 교육은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돼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관희 기자 wkh@

교육부, 대학 기초과학 연구 성과 공유

오늘부터 G-LAMP 사업 페스티벌

대학 기초과학 연구를 이끌 신진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진로와 연구 환경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3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24개 참여 대학의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G-LAMP 사업은 대학이 연구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박사후연구원 등 초기 경력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사후연구원에게는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장비 사용료 감면과 책임시수 조정 등 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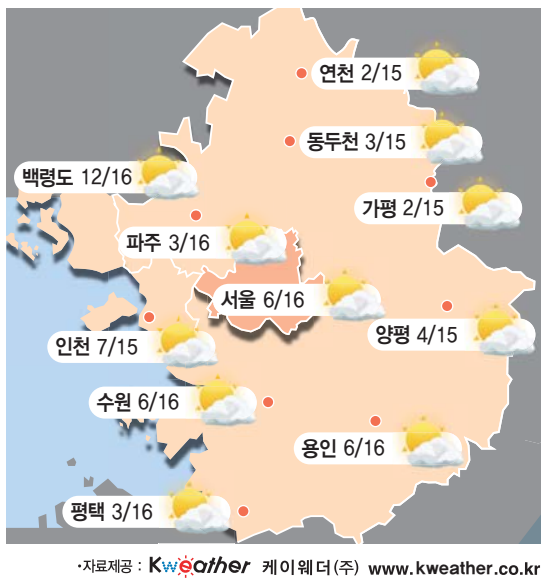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8 | 해짐 / 17:24

11월
12일 (木)
음력 : 10월 4일

수도권 날씨
6 ~ 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귀뚜라미-가스안전公, 연합 봉사활동 펼쳐

2007년부터 20년간 이어져와

귀뚜라미그룹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연합 봉사활동은 20년째 이어져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은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제20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워밍업 코리아는 2007년부터 귀뚜라미그룹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김장과 연탄 나눔,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강서구 일대에서 진행한 올해 첫 번째 연합 봉사활동에는 귀뚜라미그룹과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25명이 참여해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총 6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연합 봉사단은 각 가정을 방문해 집안 곳곳에 쌓인 생활물품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낡은 가구와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어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이 끝나면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대청소하고 가구를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새롭게 정돈했다.

아울러 보일러 AS 전문가와 가스 안전 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보일러와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주거환경 개선을 마친 가정에는 가전제품과 가구 등 맞춤형 생활물품도 지원했다.

귀뚜라미그룹과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12월에도 충청북도 11개 시·군 취약계층 대상 겨울나기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1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아
올해 협력사 대금 2438억 조기 지급

SK텔레콤은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14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SK텔레콤을 포함해 두 곳 뿐이다. 특히 SK텔레콤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에 주어지는 '최우수 명예기업'에도 선정됐다.

SK텔레콤은 '비즈파트너 경쟁력이 곧 SK텔레콤의 경쟁력'이라는 상생 철학을 바탕으로, 2003년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왔다.

'대금지급바로'를 포함해 동반성장 아카데미, 동반성장펀드, 기술보호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ESG 경영체계 구축과 AI 역량 강화 지원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어갔다. 2004년부터 '대금지급바로' 제도를 통해 중소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시중 은행과 총 11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최우수 협력사에는 별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총 2438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일시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협력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특히 ESG 진단과 각종 컨설팅을 지원 등으로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경영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특허권리 무상이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인 사 ◆성평등가족부◇정책보좌관 임용△국장급(고위공무원) 이보람 ◆한국수산자원공단◇경영기획본부장 임명△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홍성일

부 음 ▲강명순(향년 85세)씨 별세, 박종화씨 배우자상, 박성준·박윤희 모친상, 장주녀(제주항공 객실본부장) 시모상, 박채린씨 조모상=10일,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발인 12일 오전 6시 45분, 장지 서현추모공원 02-2030-4444 ▲홍정유 씨 별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빙모상 = 11일 대전 서구 성심장례식장 VIP1빈소, 발인 13일 오전 11시, 장지 정수원 대전추모공원. 042-522-4494.


기아, 獨 '골든 스티어링 휠'서 3관왕

기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공동 주관한 '2026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유럽 브랜드가 이 시상식에서 한 해에 3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기아



LG이노텍, 10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LG이노텍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평가부터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LG이노텍은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생산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이노텍



동아에스티, 캄보디아에 의약품 기부

동아에스티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의료원에 1억5000만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문의약품과 함께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를 활용한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티브 릭스메이 헤브론의료원 부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하이트진로, 소방·경찰관에 간식 전달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17개 소방관서와 충남지역 7개 경찰관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등 4700여명에게 간식과 음료를 전달하는 '감사의 간식차'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는 전국 17개 소방관서에서 소방공무원 1800여명을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누적 146개 소방관서에 약 2만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경희대-서부발전, 에너지전환 연구 추진

경희대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왼쪽부터)김진상 경희대 총장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산학협력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임직원 대상 ESG 교육과정 마련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에너지 산업 인재 양성 등이 담겼다. /경희대

8년만에 찾아온 중기중앙회장 선거



김 승 호의 시 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8년만에 회장 선거를 치른다.

이런 와중에 벌써부터 금품선거 냄새가 난다.

중기중앙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렇다.

지난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여기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합회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부부동반이었다.

그런데 A이사장의 아내에게 중기중앙회 지역회장 중 한명인 B씨가 돈봉투를 건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A이사장은 이를 공론화했다. B지역회장은 차기 중기중앙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C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2월2일 제28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과열을 우려해 출마 예정자들에게 리더스포럼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C씨를 포함해 언론에 오르내린 5명은 행사에 불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사회에서 유력 후보자들과 개별 인터뷰해 포럼에 안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양해가 돼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과열을 우려해 돌다리도 두드리던 차에 지역회장의 돈봉투 문제가 리더스포럼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한 단톡방에선 해당 지역회장을 맹렬하게 성토하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최근엔 또다른 지역회장 D씨가 돈봉투 당사자인 B지역회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엔 현재 13명의 지역회장이 있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물증이 없어 관망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기중앙회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탁 여부를 결정해 중기중앙회에 이달 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5년 제25대, 2019년 제26대 회장 선거를 맡긴 바 있다.

위탁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소위 '중소기업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돈봉투 이슈가 불거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두 차례 연임을 통해 총 16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끈 김기문 현 회장과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의 '공정·투명 선거'를 위한 책임감이 어느때보다 무거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친김(기문), 반김 구도여서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 운동 금지, 금품 등 이익 제공 금지,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중기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불법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모처럼 열리는 이번 선거가 돈선거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것이 업계 맏형이 할 일이자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에 서는 일과 다르지 않다.

/bada@metroseoul.co.kr

21세기 K-제약바이오의 '아메리칸 드림'과 '참 독립'



기자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 속 여주인공의 꿈은 '미국행'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 새 세상을 꿈꾸던 그 시절 아메리칸 드림은, 21세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명제는 아직도 불변의 진리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혁신 신약에 최고의 가치를 매겨주는 미국은 모든 기업이 선망하는 꿈의 시장이다.

거대한 미국 시장의 빗장은 여전히 높은데 문제는 후발 주자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자력으로 글로벌 문턱을 넘을 체력이 있는가다. 미국바이오협회(BIO)는 '바이오어드밴스' 보고서를 통해 백악관 전담 조직 신설과 자국 내 제조·인재 유치를 촉구하며 보호무역 장벽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중국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해 미국의 중국 견제가 K바이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던 기대는 흔들린다.

그렇다면 중국 진출은 어떠한가. 중국 토종 기업의 추격과 중국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국가집중구매) 정책으로 의약품 영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 공략, 현지 파트너사 로열티 수취 전략 등으로 중국에서 알짜 수익을 내는 국내 기업들조차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현지 안착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정받는다.

안팎의 파고 속에 투자 한파로 자금줄까지 말라버린 국내 기업들은 벼랑 끝 선택을 하기도 한다. 거액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며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후기 임상을 감당할 돈이 없어 초기 단계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을 넘기는 모습은 마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남의 집에 '입양' 보내는 듯한 씁쓸함도 남긴다.

더 큰 위기는 기술이 아닌 기업 자체가 해외 자본에 팔릴 위험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 생물보안법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우회 통로'로 삼아 지분 매수나 합작법인을 노린다. 자국 생태계를 위해 한국 기술력과 인력을 흡수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에게도 실질적 자금 수혈, 기술 보호 장치 등이 요구된다. 드라마 여주인공이 '미국행'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통해 '독립'을 열망하게 되듯 K제약·바이오에도 온전한 주권이 필요하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7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소 **4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옵니다. **73년생** 꿈 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5년생** 삶에 의지가 솟구칩니다.

호랑이 **5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62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86년생**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소신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63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유행성 독감을 주의하세요.

용 **52년생** 바람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64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88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뱀 **53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65년생**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길합니다. **77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89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합니다.

말 **54년생**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66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습니다. **78년생**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90년생** 좀 더 적극적인 귀하의 의견 피력으로 중심을 잡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 **55년생** 당신의 운은 계속 유지 될 것입니다. **67년생**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79년생**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91년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숭이 **56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 부치면 성공할 운입니다. **68년생** 좋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80년생**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능력 밖에의 일을 귀하는 추진중입니다.

닭 **57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9년생** 큰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9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개 **58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70년생** 매사 일 처리에 조심하세요. **82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94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세요.

돼지 **59년생** 현재 상태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합니다. **71년생** 재물을 흘리는 운 입니다. **83년생** 시험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남쪽에 귀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부자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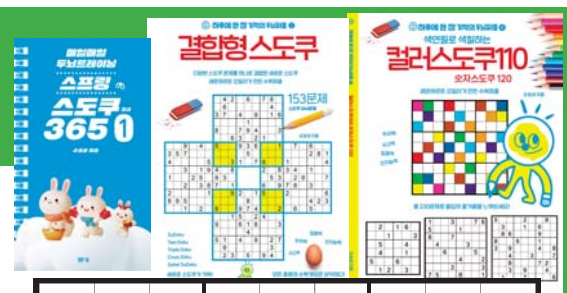
'부'(富)란 무엇일까? 한자 부(富) 글자를 파쇄해 보면 집을 나타내는 ?(집 면) 아래에 재물이 가득함, 복(?)을 의미하는 회의자이자 형성자이다. 밭 전(田)자는 곡식을 심어 키우는 터전인 땅으로서 재산의 풍요로움을 함축하고 있다. 땅 부자가 곧 부자의 상징이었다. 영어로는 'Wealth'로서 서양적 의미로도 가치 있는 물질적 소유물, 또는 자원의 풍요로움을 뜻하며,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금은보화는 물론 사람을 사서 부리고 하는 힘이 대가로서 주는 재화이니 서양적 부의 해석이 포괄적으로 부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부를 많이 지닌 사람을 우리는 통상 부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Forbes)에서는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목록에 게재되는 개인의 순 자산은 문서로 만들어진 자산과 부채의 회계에 따라 계산되며 미국 달러에 의해 표기된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으로써 빚을 제외한 자산이다.

세계 부자 순위에는 그 나라에서 권력과 지배적인 위치에 의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독재자와 왕실 등은 제외되고 있다. 부자를 통상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로 부르고는 있지만 경제 단위가 엄청난 단위로 커지는 요즘은 '조만 장자'쯤은 돼야 세계적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때 "생각이 부를 낳는다!"라며 부자전도사격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본질에서 부를 가져오는 잠재의식의 계발을 통해 부를 성취하는 과정과 원리를 짚는다. 재성이 약한 사람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사주 틀에서 모든 공식이 같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는 근면함에서 나온다."는 명심보감의 대부유천(大富由天) 소부유근(少富由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1		6	2
3	9				6		5	
					5			
2	7	1						
8								1
						3	2	4
			9					
	4		5				9	6
1	6		4	8				5

				5				2
	9	1						
2		5	6		8			
		3	4		1		6	
6		4		8		1		9
	5		9		3	4		
			1		7	8		3
						2	7	
7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술·투자·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기조강연

이 종 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에너지 유니콘 육성… 사업화·실증 지원
1조원 펀드 조성 추진해 10여개 기업 육성

전력망 10년 소요… AI시대 전력확보 과제
수요처 맞춤 ‘지산지소’ 분산형 에너지 제시
수소·바이오 등 다양한 발전원 활용해야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가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서 ‘AI시대 전력 인프라 확보에서 연료, 유연성, 비용책임의 설계로’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기술과 투자, 사업화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이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술을 사업화해 줄 파트너,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기술지주는 국내 에너지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전이 전액 출자해 지난 8월 7일 출범한 자회사다. 한전의 기술과 실증 인프라, 자금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돕고 여러 기업의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솔루션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요소 기술에는 강점이 있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만드는 부분은 부족하다”며 “여러 기업과 협력해 시스템을 만들고 패키지화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전이 보유한 1만1000여 개 특허와 약 1만6800평 규모의 실증단지를 활용한다. 에너지 기술은 전력망에서 실증해야 사업화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검증과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실증단지에서는 10여 개 에너지 유니콘 후보 기업이 한전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과 R&D,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술개발과 사업화,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해 에너지 유니콘 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력 확보를 AI 산업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AI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로봇으로 확산하는 데다 모델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하드웨어도 매년 세대교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장비의 전력·냉각 요구를 충족할 인프라가 필요해지고 있어서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완공까지 약 3년이면 되는데 송전망·배전망까지 준비하려면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며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다 보니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전력 수요처 가까이 발전설비를 갖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의 분산형 에너지를 제시했다. 나아가 이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결하는 ‘지산지소 2.0’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맞물려 실질적인 산업적 효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공급에는 여러 발전원을 함께 활용할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풍력·태양광만 쓸 수는 없고 풍력·태양광·연료전지·수소·바이오가스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발전원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원의 특성을 살리면서 저장과 운영을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생산부터 저장·연결·운영·거래까지 AI 기술과 접목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일 분야로는 데이터센터 냉각을 꼽았다. 이 대표는 “기존 냉각 방식으로는 필요한 냉각 성능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액체 냉각 이 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송전망·LNG 활용 등 에너지공급 현안 논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 참석한 에너지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부터 송전망 활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역할까지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운영 방안이 화두에 올랐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포럼 질의응답에서 에너지 부문 간 연계를 뜻하는 ‘섹터 커플링’ 활성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력의 시간대별 격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배터리가 있고 열사업이 있으려면 전력이 쌀 때 열로 바꾸거나 저장하고, 전력이 비쌀 때는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수준의 정상화와 시간대별 격차의 현실화가 이뤄지면 다양한 에너지 연계 사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연계 위해 가격체계 개선 필요
송전선로 활용한 이용률 증가 전략
LNG 발전설비-탄소감축 균형 화두

송전망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은 “송전망은 기본적으로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옆에 있는 송전선로가 운영 불능에 빠지더라도 다른 송전선로가 받아 넘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곽 처장은 송전망 이용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여유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 발전설비 확충과 탄소 감축 목표 사이의 균형도 화두에 올랐다.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출력 조절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이 필요하지만 적정 설비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LNG 발전설비에 대해 “안 짓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2035년과 204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일정한 성능 조건을 부여하고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LNG 발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소 활용 등을 언급하며 관련 기술을 준비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산업전력 안정 공급 과제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축사

안 호 영 국회의원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속에서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필요한 전기를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력망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력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전력은 산업경쟁력 핵심 에너지 인프라 혁신 속도”

축사

안 세 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AI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축사를 통해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주목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공급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안 실장은 “에너지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투자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국가 경쟁력 좌우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야”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에너지는 단순한 산업의 투입 요소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성장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원전과 전력망, 전력기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제시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전력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차세대 전력기술 등 미래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中, 유엔 평화유지군에 ‘드론 훈련 프로그램’ 전수… 8개국 참가

▲연준 ‘과잉 긴축’ 내년 美증시 복병 되나…르네상스 분석가 “큰 위험”

/사진 뉴시스

▲이란, ‘지하 미사일도시’ 공개…전력보존 과시해 협상력 높이기?

▲온실가스 1위 中, 청정기술도 세계 선두…케리 “나머지 세계는 뒤처져”

▲기름값 뛰자 석유 덜 썼다…세계 화석연료 탄소, 경제 성장에도 0.4% 감소

▲美민주당 “트럼프 건설사업 문서 파기 제보”… 내무부 “거짓” 반박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3호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유통업계 이색 협업으로 고객 잡는다 L1

K-바이오 규제 혁신 등 도약해법 모색 L2



"전력수요 급증… 선제적 전력망 구축 필요"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강연

곽 은 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AI전력공급 부담 확대… 수도권 집중도 악영향
전력망 건설 13년 소요, 변전소 선제 구축 제시



"전력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산업의 적기 투자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경제가 공동 개최한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 처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력 포화 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 전체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의 41%가 몰려 있는 반면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곽 처장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추가적으로 집중된다면 송전망은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지산지소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0.61%로 자체 발전량이 소비량 대비 극히 미미하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송전망 확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전력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는 2~3년 안에 건설할 수 있지만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와 시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특성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AI 학습 여부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수초 이내 50% 이상 변동할 수 있어 한전과 정부는 안정적인 계통 접속을 위한 '그리드코드'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버터 등을 활용해 전력계통에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변전소를 미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곽 처장은 "정부와 함께 수요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변전소를 미리 건설하자는 개념을 마련했다"며 "중앙정부에서 평가해 내년부터 공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조건부 접속 등 전력수요 유연성 확보해야"

강연

이 태 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데이터센터 접속신청 대비 공급용량 4% 그쳐
ESS·냉각설비·폐열 등 전력효율 개선 필요



"발전설비를 몇 기가와트(GW) 짓느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몇 메가와트(MW) 설치했느냐를 묻던 시대에서 필요할 때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 조절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AI시대 전력 인프라 확보에서 연료, 유연성, 비용 책임의 설계로'의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 전력안보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전제 아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급의 변동성이 커진 데 이어 AI 데이터센터처럼 규모가 크고 변화가 빠른 수요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는 건설에 1년~2년이 걸리지만 전력망 접속에는 3년~7년이 소요돼 전력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실장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목표 용량은 18.4GW지만 접속 신청은 63.9GW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급 확정 용량은 2.67GW로 신청량의 약 4%에 그쳤으며 실제 소비는 약 0.6GW 수준이다. 접속 신청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 확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실장은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효율 개선과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 유연성 확보를 제안했다. AI 추론과 달리 모델 학습은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ESS와 냉각설비도 전력 사용을 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력 사용량 조절을 조건으로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조건부 접속' 방안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도 전력 수요를 줄이는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 실장은 핀란드 에스포에서 포르툼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폐열 가격과 계약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발전 기자재 확보와 연료 수급을 과제로 꼽았다. GE버노바의 가스터빈 수주잔고는 116GW지만 세계 터빈 제조 능력은 연간 60~70GW에 그쳐 신규 설비 확보에 제약이 있다.

이 실장은 "발전설비 규모보다 전력을 필요한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받아들이는 역량 확보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해상풍력·LNG 발전 등 안정적 공급 과제"

강연

이 상 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40년 최대전력 수요 전망 26.6GW 상향
안정적 공급에 저탄소 발전 전환 병행돼야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습니다.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인프라포럼 2026'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인용해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전체 에너지 수요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확대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전력 수요 전망치도 급증했다. 정부의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지난 8월 2040년 최대전력 수요 전망치는 158.4기가와트(GW)로, 4월 전망보다 26.6GW(20.2%) 증가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약 3년 이내 전력 공급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투자 자체가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력 공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전원 구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태양광 편중을 지적하며 해상풍력 확대를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원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을 추진하는 글로벌 흐름을 소개했다.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산단에서는 전기와 고온 증기를 함께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LNG 발전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조율도 주문했다. 그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불가피하지만 2035년과 2040년 감축 목표를 고려해 배출집약도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원 확보와 함께 송전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지역산업과 연계해 데이터센터 분산해야"

강연

이 제 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유형별 입지특성 고려해 전략정책 세워야
비수도권 수요 창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데이터센터를 단순히 수동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생태계 형성을 위한 능동적인 인프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은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형별 입지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비수도권 산업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책임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유형과 분포 분석 및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 97개소의 입지 분석 결과가 소개됐다. 운영 중인 시설 69개소의 78%, 개발 예정 시설 28개소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유형에 따라서도 입지에 차이가 있었다. 전문 사업자가 시설을 구축해 기업에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는 금융기관과 유통업체 등 주요 수요처가 몰린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운영비용과 구축비용, 해저케이블 등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비수도권에도 분포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형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형 데이터센터도 입지 조건이 다르다. 추론형은 수요처와의 거리가 중요한 반면 학습형은 운영비용과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전력 확보 역시 데이터센터 입지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데이터센터 운영비용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도 시간 단위 전력 조달과 자가발전 등으로 전력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이 책임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과 지역 내 AI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습형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지를 찾고, 추론형은 비수도권에 관련 산업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데이터센터는 건설 단계와 달리 운영 단계의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지역 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과 지역경제 효과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책임은 "선제적으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혁 기자 sh95@

메트로 한줄뉴스



▲밀워키 WS 우승 이끈 머피, MLB 최초 3년 연속 올해의 감독 /사진 뉴시스

▲"월드컵 이틀 전 심장치료" 고백한 스코틀랜드 대표 맥토미니

▲한화, 2027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우완 파이어볼러 왓슨 영입

▲파이널A 이끈 인천 윤정환 감독, 10월 이달의 감독상 수상

▲'MLB 도전' 노시환, 뉴욕 메츠 새 타격코치와의 인연도 '눈길'

▲내분설 뒤 첫 훈련…'92라인' 손흥민·'96라인' 황희찬 대화 눈길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Galaxy AI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